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5 2017

VOL. 251

haninnewsinni@gmail.com

인도네시아대사관
재외투표소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S8 | S8+

**Unbox your
phone**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15 ⁺¹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0	2025	매일	77W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포레스트 컬러 믹스 2인 홈세트

지정된 컬러로 배송되며 특정 컬러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MIX HOME COMPOSITION



11 접시

28cm (지름) x 2.3cm (높이)

9 접시

22cm (지름) x 2.3cm (높이)

7 접시2p

17cm (지름) x 1.2cm (높이)



면기 2인

17cm (지름) x 8.2cm (높이)

공기/대접 2인조

공기 11.7cm (지름) x 6.4cm (높이)

대접 13.5cm (지름) x 6cm (높이)



파스타 볼 1p

22cm (지름) x 4.2cm (높이)

컵부 2p

17cm (지름) x 3.4cm (높이)



FOREST

포레스트의 세련된 컬러

- CELADON 셀라돈
- LIGHTGRAY 라이트그레이
- GRAYBLUE 그레이블루

패턴을 확인 해 주세요.

SAINT JAMES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감과 세련된 음각 패턴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숲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진 조각과 컬러 믹스 매치로 세련된 테이블세팅이 완성됩니다.

- 꼭 확인 해 주세요! -

스프레이로 분사하여 시유를 입혀 색을 내는 방법으로 제작된 그릇으로,
그릇마다 시유가 흘러내린 정도에 따라 음각의 정도와 컬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Forest Story

FOREST는

'숲'의 상쾌함이 느껴지는 깔끔한 패턴이
세련된 컬러와 어우러진 그릇입니다.
100% 정제된 천연광물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포슬린 그릇입니다.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컬러유약을 처리하여
차별화 된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SIMPLE

x

MODERN

x

SENSUAL



SAINT JAMES Showroom

Pondok Indah Mall
Jl. Metro Pondok Indah Blok 3B
2 floor unit 219, Jakarta Selatan
Tlp. 021-75920615

Lotte Shopping Avenue
Jl. Prof Dr Satrio Kav 3-5 2F floor
unit 36 Karet Kunigan, Jakarta 12940
Tlp. 021-2988 9215

Lippo Mall Kemang
Kemang Village L2-18 Lt2 36P
Antasari, Jakarta
Tlp. 021-2952 8530

Lippo Mall Puri
Jl. Puri Indah raya 11610
Unit No. LG-90
Tlp. 021-2911 1197

고객문의 : 021-3190-6949

www.saintjames.com

5월의 어느 멋진 날

MAY 2017

사은행사



UP TO **IDR 250,000**
200/500/7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F&B 바우처 특별가
IDR 100,000

VIP & MVG 멤버스 대상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Service Lounge (2F)

* Terms & Conditions Apply

스페셜 바자



LOCK&LOCK
락앤락 창고대개방
(5월19일 ~ 28일) | GF

신규오픈



(2층)



(3층)



(3층)



(3층)

SKY JUMP!

BOUNCE & SWING IN AN EXCITING TRAMPOLINE JUMP!

“트램폴린”

목~일: IDR 50,000 [30분]

금~일: IDR 70,000 [30분]

Fun 아트리움 | 3층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 메 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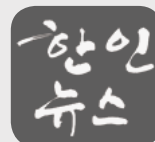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누구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두렵고
누구는 복한의 존재에 선 대책이 없는 게 두렵고
누구는 진영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을 따라야 할 일이 두렵고
누구는 견고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흔들어놓을
혼돈이 두려운 모양입니다.

뱀을 사람에게겐 뱀을 이유를 찾고
뱀지 않을 사람에게겐 뱀지 않을 이유를 찾습니다.

불안한 우리는 때때로
두려운 대상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린 저마다의 눈으로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차례

- 8 시사전망대 / 논설위원 김문환
- 12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일기
 - 주요 프로젝트
- 24 집중! 이 사람 / JKS 배도운 재단이사장
- 28 JIS 소식 <차민경>
- 29 공감 <조현영>
- 30 JKS 소식
- 32 흑마술사 - 두꾼 <배동선>
- 36 전자상거래 <김수성>
- 38 김용욱의 경제이야기
- 40 월간뉴스 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44 지상갤러리 <김은정>
- 46 행복에세이 <한상재>
- 49 여기~ 맛있어요 <이승진>
- 50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 54 보이지 않는 법칙 <편집부>
- 56 인도네시아 민법 <이승민>
- 58 문화유산 이야기 <월간 문화재 사랑>
- 60 김종성의 생활법률
- 62 그 섬에서 온 편지 <신정근>
- 69 생활정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투표소를 방문한 모자
(자카르타 거주/ 설보라, 정동민)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자카르타주지사 선거 이후의 정국향배

글: 김문환/논설위원

☞ 다원주의 제도

이번 선거결과는 인도네시아 정치사회의 담을 넘어 글로벌적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작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화되고 있는 이슬람국가 운동 분위기에 편승될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서방세계에선 ‘이슬람혐오’를 부추겨 선거에서 승리하는 극우정파들의 경우가 비일비재하던 차에, 이번 자카르타주지사 선거가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상호 호환되는 표본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 측면도 있었으나 결과는 다르게 나오고 말았다. 구스 두르 대통령과 메가와티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 각각 선대(先代) 세대의 이념을 계승하여 어렵게 다져 온 다원주의와 관용주의가 상처를 입은 것이다.

☞ 이슬람율법

아니스가 당선되면 아체주와 같이 지방조례에 의한 이슬람율법이 적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러닝메이트 산디아가의 절친인 로산 루슬라니 상공회

의소 회장도 업계를 대변하여 직접 전화를 걸어 똑 같은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 측근들은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될 리 없다고 안심시키고는 있다. 아니스, 산디아가 스스로를 포함하여 그들의 지지세력 배경이 실용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일등공신인 일부 이슬람 강경파 그룹이 반대급부를 내세우며 주, 부지사 주변을 맴돌 것이란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 사라(SARA)

이번 선거의 후유증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민감한 사안인 인종, 종교 이슈를 부각시켜 분파주의를 조장해온 캠페인 행태 때문이다. 이러한 사라병(종족, 종교, 인종, 계층)의 치유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분파주의가 유용한 도구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여타 정치단체나 정치인들에게 교훈으로 안겨 준 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전에는 시야에 나타나지 않던 강경파에 의한 정치이슬람 문제가 노골화 될 전망이다.

아후이 패배함으로써 ‘비이슬람 지도자는 불법이다’라는 왜곡된 등식이 고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승인(勝因), 패인(敗因)

이번 선거결과를 수치로 비교해보면, 1차투표에서 42.99%를 득표한 아후의 결선 득표율은 그대로 답보되어 있는 반면, 1차에서 39.95%를 득표한 아니스 진영은 결선에서 58%를 득표하여 18%가 증가하였다. 이는 3위로 탈락한 아구스 득표 17%를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의미가 된다. 자카르타주 총유권자 7백2십만명 가운데 78%가 이슬람교도로서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이 아니스에 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아후 입장에서의 패인은 무엇인가?

투표일 당일 아침까지도 집권당인 투쟁민주당의 하스또 사무총장은 52%의 득표율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상대당을 과소평가하는 오판을 범했다. 여당 연합정당이 아후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연합정당인 PPP는 조직가동에 실패하였으며, PDIP는 자만과 과신에 빠져 버렸다. 기타 연합정당들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시위에 휩쓸려 아니스 쪽으로 많은 표가 이탈하였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폴트랙은 여타 여론조사기관의 일반적인 견해인, ‘극단주의 이슬람 부상과 소수그룹의 침묵이 아니스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주장과는 다른 분석을 내어 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아니스-산디아가 조의 결정적 승인은 마지막 순간의 ‘중산층 쏠림현상’ 이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극단주의 그룹 운운하는 것은 실제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단지 정치적인 날조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결선투표일 직전까지 양측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표심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우선 선관위가 주관한 4월 12일 마지막 토론회에서 찬성여론이 아니스 47%, 아후 28%일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3일간의 휴면기간 중, 아후 측이 전 지역 유권자들에게 생필품 포장셋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을 자초했으며, 중산층의 시각에서 아후의 기존 청렴 이미지가 감점을 받고, 저소득층은 자신들이 쉽게 매표를 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버렸다. 즉 13%의 부동표 중, 60%가 아니스, 32%가 아후에게 돌아가는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부동층을 마지막 순간에 끌어당긴 아니스-산디 능력이 결국 큰 격차를 벌이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 승자의 족배

선거 당일 오후 출구조사 결과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자 공천정당의 당수인 뿌라보워 자택에선 아니스-산디아가 승리를 자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선대본부의 지도부가 총동원된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뿌라보워는 우선 선거승리의 공적을 이슬람수호전선의 리직과 이슬람그룹에게 돌렸다.

그러나 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아니스-산디아가 지금 깊은 포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와 잘 화합하여 2018년도 예산을 신임 주지사 페이스대로 집행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아후의 긍정적 유산인 투명성, 반부패 드라이브, 서민위주 시정, 서비스 마인드 관료행정을 여하히 계승 발전시키냐는 문제도 중요하다.

☞ 흑색선전 전략

이번 선거결과가 2018년 지자체장 동시선거와 2019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중상모략, 흑색선전 전략은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직을 쟁취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결과는 오랫동안 비이슬람교도와 세속유권자들에게 정치적인 온상 역할을 했던 투쟁민주당에게 혼란스런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대선,국선 동시선거를 2년여 앞두고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코위는 이러한 분파주의 교과서가 확산되고 재발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될 위협에 처해 있으며, 그 자신의 재선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 내부 리스크 관리

조코위는 자신의 권위를 갉아먹는 내부적인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잔여 임기 동안 우선 유습갈라 부통령과의 관계정립이 시급하다. 골카르당 내에서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유습 갈라는 전국이슬람사원연합회(DMI) 총재직과 이슬람대학생연맹총동창회(KAHMI) 조직을 통해 이슬람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뿌라보워는 유습 갈라와의 빅딜을 통해 매제인 악사 마흐무트를 포함한 아니스 등 몇몇 이슬람권 후보들에 대한 득실을 계산한 후에 러닝메이트로 명단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돌연변수에 따라 상황은 변할 것이다.

조코위는 개각을 통해 내부적인 기강을 확립하고자 할 것이다. 즉, 아니스에 치우친 각료를 청산할 것이며, 충성도가 떨어지는 각료들을 숙아 낼 것이다. 그리고 조코위가 심혈을 기울였던 군부, 특히 육군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이어갈 것이다. 왜냐면 이미 군부내의 특정 조직이 조코위의 재선행로를 방해하고 있

다는 정보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조코위와 군부의 불협화음은 조코위 대선 당시 국군총사령관인 물도코 장군이 예편 후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반목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코위가 솔로시장을 발판으로 자카르타주지사를 디딤돌로 삼아 대통령직에 오른 것은 유사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데렐라적이었다. 그 신화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을 받아 거품으로 날아갈 징후도 감지되고 있다. 전자주민등록증 프로젝트 납품 스캔들에 이어 15년 전의 중앙은행 구제금융(BLBI) 부채감면 특혜사건을 지금에 와서야 재수사하겠다는 것은 조코위를 둘러싸고 있는 스트롱맨(우먼)들인 여당총재와 국회의장을 무력화시키며 2019년 목표고지를 탈취하겠다는 작전계획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전세력의 총사령관은 누구인가?

2019년 대선가도가 치열한 전장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심다!



Korean Artist **제4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4th Korean Cultural Art
Association Festival

2017년 5월 9일(화) ~ 14일(일)

롯데쇼핑 에비뉴 LOTTE SHOPPING AVENUE, MAIN ATRIUM



재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총연합회

개막식/공연 Opening Ceremony & Performance
5월 11일(목) 16:30 Lotte Shopping Avenue, Main Atrium
초청공연 5월 13일(토) 16:30 Main Atrium

전시 Exhibition
2017년 5월 9일~14일



대사의 일기 제16화

“거경제에 대대돌리다” (주요 프로젝트)



2016년 3월 24일 대우 조선잠수함 진수식

지난 호에 이어

3.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경쟁

2016.3.24. 대우 조선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장보고” 타입 잠수함의 진수식 행사가 옥포에서 거행되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3척 중 첫 번째 잠수함으로 해상 시운전을 거쳐 2017.3 경 인도네시아에 공식 인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감개무량하였다. 이들 잠수함 수주는 실제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난 지 3년 후인 2011.12 정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나는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몇 개월 전까지 수라바야 국영 조선소와 동부 함대 사령부를 찾을 만큼 힘을 쏟았던 사업이었다.

내가 인도네시아에 부임하여 안 사실이지만 한국 방산품의 제1위 수출시장이 인도네시아였다.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방위산업 협력이란 으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수입)하거나 기술지원을 받던 생각만 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방산제품을 수출해 오고 있었으며 주요 시장은 동남아,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시장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방산 수출시장

한국은 이미 이 나라의 오래된 잠수함 한 척을 창정비 (overhaul, 선채만 제외하고 전체를 완전 해체하여 수리, 정비)하여 호평을 받고 있었다. 이 나라가 보유하던 2척의 잠수함은 1980년대 건조한 독일제 잠수함으로 훈련용이지만 수시로 인명 사고가 날 정도로 낡았고 오래되었다. 이를 대우조선이 산뜻하게 수리한 결과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다른 방산 제품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제환경이 한국 방산 제품 수출에 유리하였다. 일본은 국내법으로 무기(및 부품)의 해외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무기 수출금지를 포함 군사적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1999년 동티모르 독립 투쟁 당시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현지 주민학살에 간여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였다. 한편, 이 나라 군부는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싫어하였다. 1965년 친 중국계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당시 군지도부가 대거 학살당한 기억 때문이라고 한다.

2005년 봄, 내가 부임하기 직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군이 영유권 다툼을 싸고 Ambalat 해역에서 충돌하였다. 총격전은 없었지만 함정들이 서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크게 손상되었다.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군부 및 국민들은 몹시 자존심을 상했다. 동남아의 맹주를 자부하던 이 나라의 군부가 크게 망신당한 것이다. 그 후 인도네시아는 해군력 증강, 특히 잠수함 함대 건설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우리 대사관은 모든 여건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수주에 힘을 기울였다. 대사관 무관이 이 나라 군부를 수시로 접촉 하는 한편, 우리 국방부 장관, 방위청장, 군부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거나 이 나라 군부와의 교류 기회 때 마다 방산협력 문제를 제기토록 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제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문제인 만큼 어떻게 하면 SBY의 관심을 끄느냐가 관건이다. 2005.11 SBY 대통령이 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부산 근처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달라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이 있었다. 그 때 나는 대우 조선소와 고리 원자력 발전소 2 곳을 추천하면서 대우 조선소 방문을 우선 추천하였다. 그러나 SBY는 원자력 발전소 시찰을 선택하였다.

2006.12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2007.7 SBY 대통령의 한국 방문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 않았지만 방산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방위력 증강 계획 추진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방산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산 기술 습득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우리 경험을 설명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원하는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의하였다.

노 대통령은 2007년 서울 정상회담에서 한층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의하였다. 함정 건조기술 협력은 “다른 교역이나 투자 문제와 달리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고 하면서 “선박 조선 기술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기술을 우선시 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은造船 기술, 무기 기술, IT 기반 무기 통제 기술 순서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는 기술, 가격, 품질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SBY 대통령은 군 출신인 만큼 노 대통령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질이나 호의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다.

한편, 나는 SBY 방한 전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민간출신, UI 대학 교수)을 만나서 SBY를 수행하여 한국 방문을 권하였다.

그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인사였으며 한국 방문을 원하였다. 그는 SBY께 한국 수행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끝내 한국에 오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면서 잠수함 수주 관련 인도네시아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있지 않나하는 막연한 추측만 하였다.

한국, 러시아와 경쟁 끝에 수주- “공동 생산 방식”

이 잠수함 수주를 두고 한국, 독일, 러시아 3파전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독일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한국과 러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대상이 되는 러시아 잠수함과 한국 잠수함을 외형만으로 비교하면 경량급과 중량급 같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입은 전투 목적보다 국내외 과시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훨씬 威容있는 모습의 러시아제가 그들 입맛에 맞았다. 러시아 정부는 파격적인 가격에, 유리한 금융 지원을 제안하였다.

2007.9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푸틴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푸틴은 잠수함 수주관련 추가적 정부 지원책을 제안하였고, SBY 대통령과 군부 지도층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소문이 자카르타 외교가에 퍼졌다. 지금 돌이켜보면, SBY는 아마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재제에 불만, 러시아 카드를 활용할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 대사관이 접촉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부 인사들도 SBY가 푸틴에게 약속하였다는 소문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대우 조선 측에게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제안을 하자고 설득하였다. 즉, “공동건조” 방식이다. 3 척 중 2 척은 한국에서 건조하되 나머지 한 척은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한다, 두 나라

기술진이 건조 작업에 공동 참여하며, 마지막 한 척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건조)함으로써 기술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자는 제안이었다. 내가 과거 중국 근무할 때 중국에게 “공동 생산 방식”을 제안하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예가 있었다. 그 때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다. 독자적 기술 개발이 어려운 나라들에게 기술 공여제외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제의를 인도네시아 군부 요로에 전하도록 하였고, 나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제안을 선전하고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 잠수함으로 승부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도 물 건너갔나 하는 심정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자카르타 떠난 지 3년 후 한국 대우조선이 수주에 성공하여 계약을 최종 체결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부와 군부 지도부는 러시아 製로 방침을 정했으나 해군 소장급들이 강하게 한국의 공동건조 방식을 밀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장래를 위해서는 구매보다, 기술력 습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지도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당초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 대사관이 포기하지 않고 “공동건조 방식”을 가지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던 결과로 보인다.

수라바야 조선소와 동북 함대를 방문

나는 2008.1월 말 수라바야를 방문하였다. 본부로 이임하기 4개월 전이다. 나 자신 잠수함 수주 경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 조선업체 실상도 직접 보고 싶었다.

수라바야에서 PAL 조선소, DPS 조선소, 동부 함대사령부를 방문하였다. PAL 조선소는 이 나라 최대 조선소로서 상업용 선박 건조와 함께, 군

함정 건조 및 수리/수선도 겸용하고 있다. PAL에는 한국 대우조선과 협력으로 선박 한척을 건조 중에 있었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인력이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다음 방문한 DPS 조선소는 이 나라 조선업계 3위라고 하지만 훨씬 영세하게 보인다. DPS는 수라바야 시가 추진하는 Lamongan 매립 지역에 20 ha 부지를 확보하여 3-5 만 톤급 선박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선소 확대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동부 함대 사령부에서 사령관을 만났다. 그 부대는 대우 조선에서 창정비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다. 내가 after service 차원에서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수리한 잠수함에 문제가 없느냐고 문의하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서 창정비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다. 나는 이 자리에서 잠수함 수주 관련 우리가 제의한 “공동건조 방식”을 다시 설명하였다. 만약 그들이 대우조선이 실행한 창정비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나의 말이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동 사령관은 새로운 잠수함 수

주 관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제안내용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2013년 SBY 대통령은 퇴임에 앞서 가진 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전단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12 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최근 Jakarta Post 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3척의 잠수함 건조가 끝나가는 현시점에서 추가 3척의 잠수함 수주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조선업계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동남아 해군함정 및 잠수함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무기수출 금지 족쇄를 해제하였고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높아가는 분위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7-8년 전 한국 방산 업이 독점적 위치를 즐기던 시기는 지났다. 이럴 때 일수록 대우조선이 3척의 잠수함 수주를 계약대로 이행하여 제품과 신용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라바야 조선소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인도네시아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세미나 개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와 인터내셔널 SOS가 공동주최하는 안전세미나가 4월 6일 한국문화원(자카르타, 에퀴티타워 17층)에서 각계각층의 한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질병이나 재해, 테러 등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시 잘못된 초기대응으로 개인의 신변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인지에서 출발하는 이번 세미나는 타국이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기대를 모았다.

1부 의료 관련 강연에서 인터내셔널 SOS 측 신영석 박사는 “인도네시아는 지금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수혈시스템과 혈액관리로 현지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처치나 치료를 현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연계하여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을 구입할 때도 유통기한과 정량 복용, 제조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티푸스 같은 수질성 질환, 뎅기열 등의 예방법으로 개인의 위생관리와 방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어, 생활 속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강연하였다.

2부에서는 시위와 테러 등 보안적 문제에 관련하여 임진성(인터내셔널 SOS)보안 팀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임팀장은 경범죄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범인을 당황케 하지 말고 눈에 띄는 행동과 시선처리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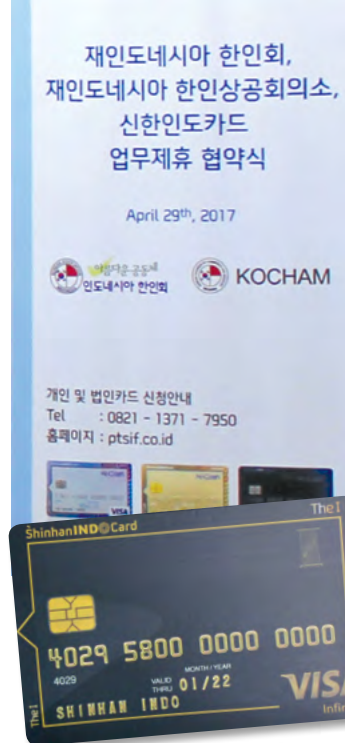
테러에 관련해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공항, 공공 이벤트 장소, 긴 연휴를 앞둔 금요일 등 특히 경계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과 시점 등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머물고 있는 곳의 비상구나 주방 출구 쪽의 유사시 동선을 미리 알아 놓고, 도망갈 지, 숨을 지, 대적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천 대사관 경찰영사는 요사이 급증하고 있는 동포들 간의 송금거래사기와 온라인을 통한 국제 송금사기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재한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적절한 타이밍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지에서의 의료 및 보안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곳에서 필요한 안전 매뉴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는 시간이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KOCHAM, 신한인도카드 업무제휴 협약식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양영연),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 신한인도파이낸스(법인장 김대영)는 지난 29일 자카르타 한인회에서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두 단체와 신용카드를 연계로 공익적 제휴 모델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금번 업무 제휴를 통해 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및 신한인도파이낸스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과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신한인도파이낸스는 발급된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한인사회 발전기금으로 전달하기로 협의하였다. 발전기금은 한인학생 장학금, 한인회관 건립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카드 발급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으며, 신한인도파이낸스 김대영 법인장은 “금번 제휴는 인도네시아 최초로 신용카드를 발급개시한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한국 신한카드의 앞선 서비스를 인도네시아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한인도파이낸스는 한국의 신한카드와 현지 인도모빌그룹이 합작한 회사로 한국 신용카드사 최초로 지난 1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인 및 법인 신용카드 발급을 개시하였으며, 현지 합작 파트너인 살림 그룹의 임직원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빠르게 발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신한인도파이낸스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의 학생들을 위해 5천만 루피아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양영연 회장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은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신용





제 19대 대통령선거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투표 종료

신청인 5,863명 중 4,369명의 참여로 투표율은 74.5%

제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5.9 대선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투표를 지난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엿새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Jl. Gatot Subroto, Jakarta)에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땅그랑(한인회관)에서 실시되었다.

지난 3월 30일에 마감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동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총 5천 8백 31명이 선거인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 동포사회에 높은 참여의식을 보여주었다.

5월 2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지난달 25~30일 진행된 인도네시아 재외투표 결과, 신고·신청한 재외유권자 5,863명 중 4,369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74.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신고·신청한 인도네시아 재외유권자인 2,860명보다 52.8%(1,509명) 증가했다.

투표일 이전에 선거인등록을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장으로 들어서서 신분을 확인시킨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귀중한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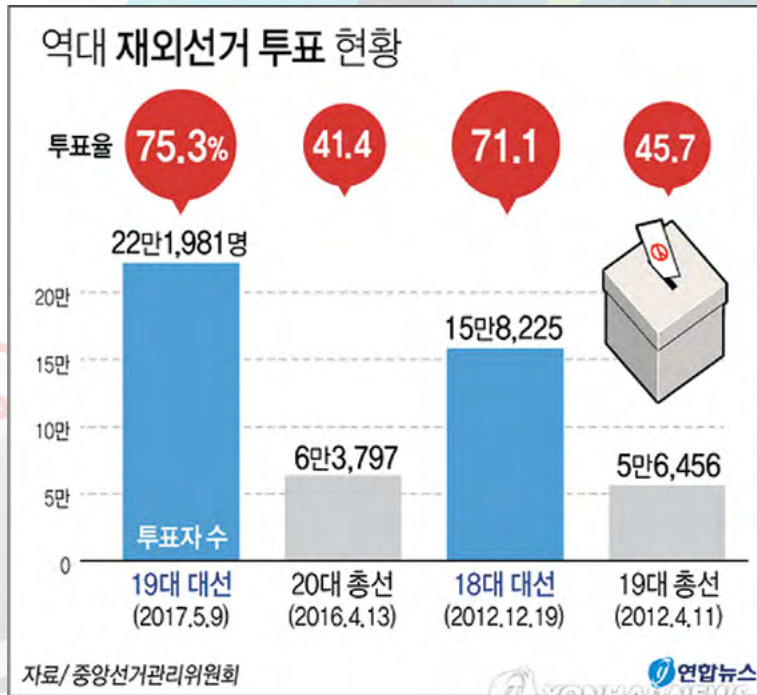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선거는 지난 18대에 이어 두 번째이다. 권리를 행사하는 책임감을 반영하듯 많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어느 때보다 신중했다.

한 유권자는 “다음 대통령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재외선거는 자카르타 소재 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3,493명이 투표했고, 추가로 마련된 땅그랑 투표소에서 870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자 수 증가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 영구명부제, 추가투표소 도





재외선거 비교/ 19대 대선 재외투표 22만1천여명 참여
‘역대최다’ …투표율 75.3%

입 등 투표편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 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 재외투표도 역대 최다인 2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투표에서도 재외유권자 29만4,633명 중 22만1,981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75.3%를 기록했다.

투표자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만8,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율은 71.1%였다. 중국 3만5,352명(80.5%), 일본 2만1,384명(56.3%)이 뒤를 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주 10만6,496명(74.0%), 미주 6만8,213명(71.7%), 구주 3만6,170명(84.9%), 중동 8,210명(84.9%), 아프리카 2,892명(85.4%)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2017 인도네시아 용무도 협회 회장 이 취임식

2017년 4월 26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용무도 협회 3대 김태화 회장의 취임식이 개최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용무도의 보급과 인지도 확장을 통해 한국용무도와 인도네시아 용무도 양국의 상호협력과 관계증진을 위한 이 자리에서 김경배 국제 용무도 연맹 총재는 “용무도라는 한국의 무예를 통해 한국문화와 정신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용무도 확대, 보급에 기여한 인도네시아 용무도 협회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김태화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절도있고 활기찬 무도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뿌리내린 용무도를 더욱 체계있게 확산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초대 배웅식 인도네시아용무도협회 회장은 “용무

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용무도의 힘찬 행보를 응원하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용무도는 현재 인도네시아 전군의 수련 무술이며 대통령 경호실, 특수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한국인 사범으로부터 직접 교육받고 있다. 재인도네시아 용무도 단체는 2012년 국제용무도연맹,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2012년 용무도를 인도네시아 전체에 알리고 보급하자는 캐치아래 협회를 발족하였다.

2016년 반등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전국 체전에 시범종목으로 성공리에 경기를 마치고 2020년 파프아 전국체전에선 당당히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용무도는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개학과 교수들이 전공분야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실전 종합 무술로써 합기도, 유도, 씨름 등 기존 무술 및 호신술의 장점만 취해 탄생한 무예이다.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식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가 지난 4. 25(화) 11:00 꾸닝안에 있는 아르고 플라자 11층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상북도에서 박찬우 글로벌 통상협력과장과 대구경북 한-인도네시아협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대사관 김창년 경제 공사참사관을 비롯하여 한국무역협회(KITA), 한인상공회의소(KOCHAM),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등 현지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하였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중심 리더 국가이자 앞으로 21세기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에 주목하여, 지난 2015년 말에 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를 설립하여 양국간의 수출통상, 교류협력, 투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에 대구경북 한-인도네시아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오전에 자카르타사무소 개소와 함께 오후에는 술탄호텔에서 수출상담

회를 개최해 수출계약 250만불, 수출상담 500만불이라는 큰 성과를 일구어냈다. 26일에는 한인 사업장이 많은 짜카랑 지역의 수카르스미 마을(Desa Sukaresmi)과 수카르스미 초등학교(Sekolah Dasar Negeri Sukaresmi)를 방문하여 생필품, 마을 발전기금 및 학용품과 학교발전기금 등 500여 만원 상당의 성금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한편 이번에 단체 방문한 대구경북 한-인도네시아협회(회장 오유인)는 경상북도와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통상 및 친선교류를 위해, 2015년 5월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많은 대구경북 중소기업인 및 유관 관계자 5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이며, 경상북도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해외 민간 사절단이다.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당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뉴욕과 LA,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등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제공: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장 권기일/0812-9818-8555)



제1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문학축제

재인도네시아 문인협회는 2017년 4월27일 한국 문화원(자카르타, Equity tower)에서 제 1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문학축제를 열었다.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문효치(한국 문협 이사장)시인을 비롯한 한국문협임원 이광복 소설가, 지연희 수필가가 참석하였고 각계각층의 한인동포들이 재인니 문인협회 회원들과 수상자들이 어우러져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수상자가 직접 수상작인 자기 시를 낭송하고 수상자 한명한명 수상 소감을 밝히고 축하 공연(아르테 합창단의 합창, 사산도 연주, 전통춤 공연 등)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유창

한 한국어 실력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수상자에게는 더욱 관심이 쏠렸다.

박재한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축사에서 “새로 시작한 적도문학상을 통해 많은 한인동포들이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문이사장은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수상소감을 말하는 한인학생들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감동을 준다. 우리 문학의 미래를 보는 흐뭇한 시간이었다”며 격려했다.

이번 적도문학상 공모전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거주하는 한인 및 인도네시아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많은 한인들과 인도네시아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마감 날까지 응모작들 모여들었다.

동남아 한국문단을 주도하는 대표 문학 행사로 자리매김 하게 된 이번 적도문학상 공모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국문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인작가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17년 제1회 「적도문학상」 수필 심사 평>

대상으로 선정한 신정근의 수필 「그 섬에서 온 편지」는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항구도시에서 거주하는 응모자로 고국 서울 도심의 풍경과 항구도시 마카사르를 관조하는 시선이다. 이 수필은 단순한 체험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깊은 사유의 세계를 펼쳐내고 있다.

제련된 보석처럼 빛을 밝히는 유려한 문장이 독자의 시선을 모으게 한다. 문장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어떤 의미를 담는 그릇이다. 한 가닥의 의미가 탐스러운 과일처럼 감각적 문장으로 옷을 입을 때 독자는 감동하게 된다.

심사위원장 / 지 연 희(한국문협수필분과회장)

(제공: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수상자 발표- 본지 P66





제7회 국제 어린이 사생대회

JIKS 11학년 학생 기자 최영서

4월 29일 토요일 싱가포르 국제학교(SIS)에서 제7회 국제 어린이 사생 대회가 개최되었다.

오전부터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대회장으로 입장을 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대회장은 나이 별로 몇개의 교실로 나누어져 있었고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선생님들도 몇분 계셨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 교실에 입장한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지만 오전 10시에 “아름다운 나의 나라”, “나의 보물”이라는 주제가 발표되자 아이들과 교실 밖에서 아이들을 응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바르게 앉아서 혹은 바닥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 교실 밖에서 응원하시는 엄마의 눈빛만 바라보는 아이들도 있었다.

크레파스, 색연필, 그림 물감으로 흰색 도화지가 조금씩 알록달록한 색으로 채워지면서 아름다운 나의 나라와 나의 보물이 도화지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대회를 통해 다른 학교, 다른 나라 아이들과 만날 기회가 있고 그림으로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조금만 어렸더라면 참여했을텐데, 약간 아쉬웠다.

이 대회는 4세~6세, 7세~9세, 10세~12세, 13세~15세 그룹으로 나누어 치뤄졌다. 어느 아이의 작품이 수상될지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국제 어린이 사생대회에 참가 접수자 347명,
SIS 의 10개 교실에서 진행

1. 수상작발표(5월4일 10시)
- 문화원 website
2. 시상식 : 5월13일 10시
3. 전시기간: 5월13일~20일



집중! 이 사람

꿈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배도운 재단 이사장



우 리 말로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다
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글로벌의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1. 인도네시아 정착한 개인의 스토리 및 사업체 소개

- ◆96년 (주) 대우 (이후 대우 인터내셔널) 인니 의류 법인장 부임
- ◆98년 대우 사태 발생 이후 회사 내 의류 부문에 대한 진로가 정해지지 않고 표류 하던 중 2000년 초 대우를 퇴직하고 별도 회사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를 설립하여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음.
- ◆회사의 주 생산 수출품은 여성용 블라우스이며 연간 약 3천만장의 의류를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1녀 1남 모두 jiks 를 다녔음

2. JIKS 의 현재 상황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12학년
- ◆학생 수 : 710명, 교직원 : 82명
-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소모시간 과중과 인니 내 다양한 국제학교 증가 및 특히 초등 입학생 수 감소 등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수 감소
- ◆2016년 대학입학 실적(졸업인원 79명)
한국대학진학 : 재학생 72명, 졸업자 2명 (대입현황 첨부)
인니대학진학 : 4명, 미진학 : 3명

3. JIKS 발전 계획 및 목표

- ◆영어교육 강화 : Cambridge Curriculum 확대 및 원어민 담임제 도입으로 영어 의사소통능력 함양 및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 ◆기숙사 건립 및 운영 : 방과후 강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원어민 및 한국인 교원숙소를 겸비한 기숙사 건립으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통학 불편 해소 및 자카르타 시내 이외에 거주하는 학생 유치
- ◆파견교원 확대 : 교육부와의 협력으로 파견교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수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유치함으로써 JIKS 교육의 질 향상 파견교원의 경우 승진점수가 부가되므로 우수교원들이 대거 지원함

4. JIKS 학부모 및 한인사회에 하고 싶은 말

JIKS의 교수진과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 시설은 자카르타 내 인터내셔널 스쿨 중 최상위권에 속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타깝습니다. 학교 홍보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한인 동포들께서는 자녀를 JIKS 로 보내주세요!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고 교원들을 존중할 때 학교가 발전합니다.

한인사회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발전기금 마련 등 한국학교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평소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구절이나 인생철학이 있다면...

진인사 대천명과 역지사지라는 두 구절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어 지금까지 마음 속에 새기고 있는 구절로 최선을 다 하고 그 주어진 결과를 받아 들이라는 구절로, 결과 보다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를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번 더 한인동포들께 당부드립니다

"자녀들을 JIKS 로 보내주십시오. 정성어린 최상의 교육으로 우리 2세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겠습니다"

KOICA,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시스템 개발사업 최종워크숍 개최



인도네시아는 열대기후에 속해있는 섬나라로 비로 인한 홍수피해가 잦은 나라이다. 특히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60KM정도 떨어진 찌따룸강 유역은 인도네시아에서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이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화로 인해 홍수문제가 확대되어 왔으나 홍수범람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홍수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했다.

홍수 예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낀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이사장 김인식)와 인도네시아의 공공사업주택부(MPWH)는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유역 홍수예경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실시해 홍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간을 확보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인도네시아 반둥시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사업의 결실을 맺는 최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의 김소위 KOICA 인도네시아 부사무소장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MPWH)의 수자원관리국, 수자원개발국, 찌따룸강유역청 및 유관부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KOICA는 홍수 예경보시스템 가동을 위해 강우관측소 13개소, 수위관측소 8개소, 경보국 5개소, 홍수감시시설 2개소,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 1개소, 통신타워 8개소와 이를 관리하는 상황실을 찌따룸강 유역청(BBWSC)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유량을 측정하고 우천시 홍수 예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는 찌따룸강 유역청(BBWSC)에 설치된 모니터링 센터에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과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수차례 전문가가 파견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 종료에 앞서 유관부처들과 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 증진과 지속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무협,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e 커머스’세미나 개최

동남아 최대 인터넷 사용자수, 소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의 큰 잠재력, 폭발적인 모바일 거래액 증가 등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인도네시아 무역부, 한-아세안 센터와 공동으로 4월 4일 자카르타 메리어트호텔에서 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서중윤 일레브니아 그룹장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2억5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시장으로 성장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지만 한국과는 환경이 크게 다른 만큼 시장 진출을 위해 꼼꼼한 준비는 필수다.

‘인도네시아 e커머스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중윤 그룹장은 이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양한 오픈마켓에 자사 상품을 등록해 비교할 것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사이 가격에 매우 민감한 만큼 유연한 가격정책이 필요 △긴 호흡으로 시장에 접근 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현재 약 1억명,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자는 6,500만명, 전자상거래 사용자는 인터넷의 30%인 2,800만명에 달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근간인 결제시스템과 물류가 취약한 게 큰 걸림돌이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부는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 등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고,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는 고무적이다.

이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매출이 56억 달러에 달했고, 앞으로 연평균 20%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기록해 2020년에는 12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니 전자 결제 솔루션 현황 및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디나 나이스페이 대표는 “인도네시아 e커머스 사용자의 80% 이상은 은행을 통한 송금을 하고 있다”며 “기존 송금 방식이 불편해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실시간 자동 입금 확인 방식의 온라인가상계좌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심태용 미래에셋대우 이사는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낮은 은행계좌 보유율로 인해 현금 위주의 결제 방식이 우세하지만 앞으로 모바일 기반의 핀테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제공=연합뉴스]

PROJECT (LEAD) WEEK (학생기자 차민경)



(학생기자 JIS 차민경)



집짓기 봉사 (라오스)



라오스

JIS (Jakarta Intercultural School) 9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매년 PROJECT WEEK 을 다녀온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첫해인 9학년 학생들은 여러 나라로 나누어서 Project Week 수학여행을 가게 된다. 중국, 호주,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운데, 자기가 관심 있고 가고 싶은 3곳을 우선 선택하고 그 중 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환경, 역사, 문화 등을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주로 10월에 가는 여행이었지만 올해는 이전과는 달리 명칭도 LEAD WEEK로 바뀌고 날짜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주일간 가게 된다고 한다.

학생들은 각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 유산을 구경하며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나라의 음식도 맛보고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특색에 맞게 그 지역에 적합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래된 유산과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그 나라 고유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통 옷을 입어 보는 등의 활동을 하고, 호주에서는 야생에서의 캠핑,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는 집짓기 봉사 활동에 참여 한다.

특히 네팔에서는 카트만두 산맥에서의 멋진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 등산도 하고 또한 치과가 부족



중국, 만두 만들기

한 네팔 현지인들 위해 치과 의사한테 간단한 진료 방법을 배워서 무료 치료해 주는 봉사활동도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서로 다른 경험을 한 Project Week 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이 여행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간단한 여행 가이드 글이나 인상 깊게 찍은 사진 등을 선생님께 제출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뽑아 상을 받기도 한다.

평소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아시아의 역사나 문화를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과 달리, 직접 찾아가서 느끼고 배우는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좀 더 흥미롭고 즐겁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짧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 친구들과 생활하며 새로운 우정도 쌓고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 항상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여행이다.

희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 Cirebon, Jawa barat

© 2016, Cho Hyun Young (ajuma86@hotmail.com)

JKS

JKS, 초등과정 신임 '김종인'교감 부임

지난 4월 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S)에 새로운 교감선생님이 부임하였다.

신임 김종인 교감선생님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정 석사로 경남교육청에서 23년간 초등교사와 1년 6개월 교감으로 근무하다 본교에 부임하였다. 초등교사로 근무할 당시 다양한 주제로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수업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최근에서는 교육과정 및 수업 컨설턴트, 행복학교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교감 선생님 집무 모습

앞으로 본교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의 집짓기

Building Homes, Building Lives



코윈인도네시아는 매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집짓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집짓기 '기초공사'에 참여해 뜻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며, 함께할 **코윈회원 및 교민들 및 자녀**들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일시 : 2017년 **5월 13일 (토)**, 오전 9시~오후 1시

신청 : 1004Kowin@gmail.com

코윈 인도네시아 회장 박현순 배상

G.R.O.W JIKS, 2017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 개최

2017년 03월 31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는 재학생 학부모와 예비 신입생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를 근간으로 한 본교의 중점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 원어민의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거꾸로 수업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신입생 학부모들의 자녀 취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7 JIKS는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뿌리가 튼튼한 어린이, 창의성을 갖춘 슬기로운 어린이, 바른 인성으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교의 중점 교육활동으로는 독서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전 학년으로 인니어 수업 확대 실시로 현지 문화의 이해, 거꾸로 수업과 같은 스마트 활용 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력 신장, 동아리 활동과 ASSP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학교로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과 JIKS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영어 교육과정 설명



설명회에 참가한 학부모님들



Dukun, 1925. ↓
Foto: KITLV. ↵

흑마술사 - 두꾼 (Dukun)

날로 강경화되어가는 이슬람의 기치가 높이 휘날리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표면에서 거품을 한 꺼풀 살짝 걷어내면 그 밑에는 초자연적이고 불가사의한 원초적 샤머니즘의 세계가 무한히 펼쳐 집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광대한 국토 곳곳에 퍼져 살고있는 만큼 그들의 민속과 토속신앙의 스펙트럼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인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전국구 귀신들로 꾸뎀아낙, 뽀쥬, 뽀윅, 켄더루위, 순텔 볼롱 등이 있고 지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바나스빠띠, 물귀신 반유, 웨웨, 꾸양, 꼬마망 같은 지역구 귀신들도 있습니다. 흑마술과 귀신들의 애기를 풀어 나가자면 귀신들이 대거 몰려나온다는 말람쭈앗 끌리원(Malam Jum' at Kliwon - 자와(Jawa)의 5요일 중 끌리원요일과 목요일이 겹치는 날의 밤)의 유래나 요즘도 가끔 현지뉴스에 등장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학교나 공장에서 집단빙의현상 꼬수루판(Kesurupan)과 그에 대응하는 이슬람식 엑소시즘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일무꼬발(Ilmu kebal)이라 불리는, 충격에도 꼬덕없는 금강불괴 신체술도 있고 빨라부한 라투(Pelabuhan Ratu)라 불리는 자와섬 남쪽해안의 '여왕의 항구'에 자주 출몰한다는 남쪽 바다의 지배자 로로키둘여왕의 일화, 그리고 마술에 힘입어 권력과 명성을 얻은 유명인사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토픽들은 방대하기 이를 데 없지만 우선은 두꾼(dukun)에 대한 얘기부터 꺼내볼까 합니다. 두꾼이란 인도네시아의 무당, 또는 흑마술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무당들이 몸주를 모시는 것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두꾼들은 귀신과 혼인하거나 제물을 바치는 계약을 통해 얻은 힘으로 귀신들을 부리거나神通력을 발휘해 의뢰자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두꾼의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산땃(Santet) 저주와 함께, 누구든 천하일색 미인으로 보이게 하여 성형수술도 무색케 하는 수숙(Susuk) 시술, 주술적 방법으로 상대방을 홀리는 뽀렛(pelet), 귀신에게 생명이나 수명 등 제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단기간내에 부자가 되려는 제물주술 빼수기한(Pesugihan) 등의 얘기가 필수적이고 그러자면 그들이 부리는 진(djinn)과 귀신들의 종류와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마술 또는 마법이라는 것이 실존하느냐, 또는 해리포터와 볼드모트의 대결처럼 마술을 백마술과 흑마술로 나누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적 신념과 확신에 달린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를 몰고 도로에 나서기 전에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미리 배우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를 가까이 접하기 위해선 알고 있는 편이 효율적인 일반상식같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략의 개요 정도를 훑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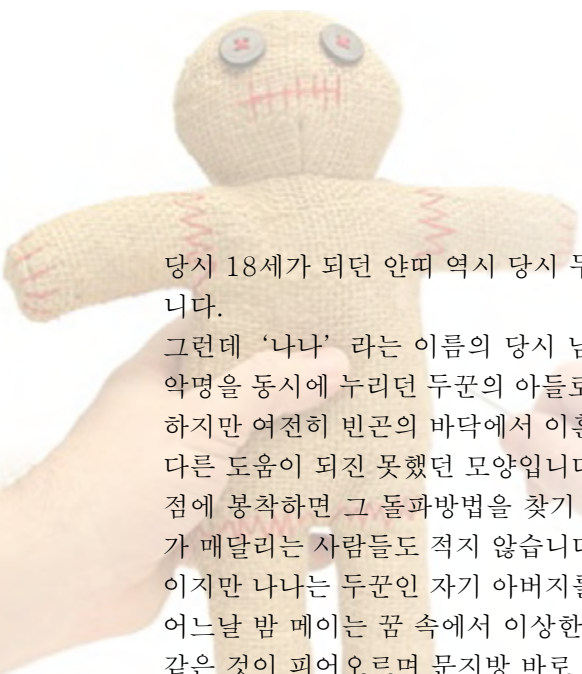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르바란(Lebaran) 휴무를 맞아 보고르 인근 자싱아(Jasinga) 산골의 친척집을 다녀온 메이네 온 가족이 앓아눕는 일이 있었습니다. 곧 차도를 보이긴 했지만 메이는 마치 엑스맨의 울베린이랑 한바탕 싸우기라도 한 듯 한동안 얼굴 한복판에 세 줄의 손톱자국 같은 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때 메이가 내게 해준 얘기들은 도무지 잘 믿겨지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까라왕(Karawang) 출신인 메이의 엄마는 철없던 시절 자싱아 산골짜에서의 첫 결혼생활을 허겁지겁 이혼으로 끝내고 그 때 얻은 첫아들을 이웃에 맡기고서 14살 즈음 자카르타로 재가해 나왔습니다. 그 이웃과는 그 이전부터도 오랜 인연이 있었고 거기 맡겼던 첫아들이 금광에서 벌어진 모종의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후에도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지내왔었는데 메이가 둘째 아기를 출산했을 때 안띠라는 이름의 그 집 딸을 한동안 자카르타에 데려와 육아에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와 순다지역의 시골에서는 딸이 초경을 시작할 무렵인 13-14세 조혼시키는 풍속이 아직도 성행하는데 그것은 빠듯한 살림에 입 하나라도 줄이겠다는 의지와 그렇게 딸을 출가시킬 때 신랑측으로부터의 ‘마스까윈’(mas kawin)이라 흔히 부르는 지참금(?) 수입에 대한 기대가 어루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의 결혼을 ‘거래’라고 인식하는 신부측 부모는 사위가 시원찮다고 여겨지면 끈질기게 이혼을 종용한 후 다시 다른 남자에게 지참금을 받고 재혼시키곤 합니다. 물론 집에 아내를 두고 옆 집 또는 옆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거나 둘째 아내를 얻어 집을 나가 버리는 본능에만 충실한 무책임한 남자들 탓도 적지 않지만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90%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가 예상과는 달리 지방 저소득층만 놓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이혼율을 보이는 것이고 90년대 전후 자카르타 근교공단의 경공업 노동인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여공들 중 대략 반쯤이 아이 딸린 과부이거나 이혼녀, 또는 재혼녀였습니다.



당시 18세가 되던 안띠 역시 당시 두 번 째 이혼수속을 밟으며 세 번 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나’ 라는 이름의 당시 남편은 수입이 변변치 못한 채소장사였지만 동네에서 명성과 악명을 동시에 누리던 두꾼의 아들로써 자신도 나름대로 약간의 술법을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곤의 바닥에서 이혼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능력이 그의 인생에 별다른 도움이 되진 못했던 모양입니다. 순다족 남자들 중엔 아내나 애인과 문제가 생겨 어떤 교착점에 봉착하면 그 돌파방법을 찾기 위해 뭔가 실질적 노력을 하기보다는 두꾼에게 쫓르륵 달려가 매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귀신의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지만 나나는 두꾼인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애원했던 모양입니다.

어느날 밤 메이는 꿈 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싱아 안띠의 부모집 부엌에 뭉게구름 같은 것이 피어오르며 문지방 바로 밑 뽕굴에서 뽕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안띠는 엄마가 아파 마침 자싱아 집에 돌아가 있던 차였는데 잠에서 깨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된 메이는 안띠에게 전화해 부엌을 한번 뒤져 보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부엌을 뒤지던 안띠와 가족들은 메이가 꿈속에서 뽕굴을 보았던 부엌 문지방 밑에서 뭔가를 넣은 수상한 형겍뭉치가 파묻혀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모래, 사금파리, 커피가루, 바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건 두꾼들이 저주를 걸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었어요.

그 용도는 마치 피뢰침이나 GPS 발신장치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두꾼들이 저주를 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주를 담은 산뻏(santet), 말하자면 한국전통무속의 ‘살(煞)’의 개념과 비슷한 것을, 두꾼이 부리는 진(djinn 또는 jin으로 표기, 이슬람권 세계의 악마, 귀신, 도깨비 정도의 개념)을 통해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꾼이 산뻏저주는 은밀하게 시전되지만 그 저주를 쏘아보내는 모습은 밤하늘에 불덩어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소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편지가 자칫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도 있듯이 저주도 엉뚱한 곳을 치지 않도록 목적지에 위치발신장치를 몰래 심어 놓는 것이죠. 그게 안띠가족들이 부엌에서 발견한 두꾼 팩키지의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잘못 날아간 산뻏이 엉뚱한 상대를 쳤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건들 중엔 자카르타 주지사 아후의 일화도 있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까스꾸스통신에 실린 내용입니다.

Quote:- Cerita santet di Tanah Air bukan hal baru. Wakil Gubernur DKI Jakarta, Basuki Tjahaja Purnama, pun mengaku pernah terkena santet. 파나아이르 지역의 산뻏저주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카르타 부지사 아후 역시 산뻏을 맞은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Ahok, sapaan Basuki, menceritakan pengalamannya terkena di sela-sela kunjungan ke kantor PLN Pusat. Menurut Ahok, sebenarnya dia hanya korban santet salah alamat. Santet itu sedianya ditujukan ke seorang rekannya. 그는 인도네시아전력공사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기도 예전에 산뻏을 맞은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산뻏은 애당초 그를 노린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를 맞추려 했던 것이었다. Cerita bermula saat Ahok menemani temannya yang mendadak sakit aneh ke orang pintar alias dukun. Dukun itu mengatakan, penyakit yang diidap rekan Ahok dikirim orang lain melalui jalur gaib.

Entah apa yang terjadi, Ahok malah ikutan sakit setelah menemani rekannya ke dukun. 이 이야기는 갑자기 이상한 병이 발병한 친구를 따라 두꾼을 만나러 가면서 시작된다. 두꾼은 그 친구는 누군가 미지의 경로를 통해 보낸 저주에 맞아 병이 든 것이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 인지 그렇게 친구와 함께 두꾼을 만난 후 아훅 자신도 드러눕게 되었다는 것이다.

“Mungkin waktu setannya mau masuk lihat muka saya lebih serem dari dia,” ungkap Ahok, di Balai Kota DKI Jakarta, Kamis (12/12). ‘아마 그놈의 귀신이 내 몸에 들어가려 할 때 내 얼굴이 자기보다 훨씬 무섭게 생겼다는 걸 봐버렸던 모양이야’ 아훅은 시청회관에서 지난 목요일 그렇게 말했다. Sejak kejadian itu, Ahok lantas memasang papan nama di depan pintu kamarnya. Dengan harapan, kalau ada kiriman penyakit lagi tidak salah alamat. 그 일이 있은 후 앞으로 누군가 저주를 실어 보낼 때 그때처럼 주소를 잘못 찾아 배달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훅 부지사는 자기 집무실 문 위에 이름표를 크게 붙여 놓기로 했다. (후략)

(출처 - <http://www.kaskus.co.id/thread/52aeda3fbbf87b80048b4609/cerita-ahok-kena-santet-saat-pergi-ke-dukun/1>)

다시 메이의 얘기로 돌아가, 그런 예지몽 비슷한 것을 꾸는 메이도 어딘가 신끼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 얀띠와 나나의 이혼수속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 주술물품이 든 형겅뭉치를 부엌에 묻어 놓은 것은 나나의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얀띠와 나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개골과 두피가 제대로 덮이지 않은 채 뇌가 드러난 상태로 태어났다는 그 아이는 24시간도 채 되지 못해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 그런 끔찍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순다의 산골짜에서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얀띠가족들은 그게 나나와 그의 아버지가 조심성없는 주술로 귀신들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두꾼의 저주술 팩키지

인도네시아에서 즐기는 편리한 전자상거래 (E-Commerce)



김수성(Qoo10 Indonesia)
john@Qoo10.com

전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직접 가게를 방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전통적 행위를 인터넷이라는 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도 TV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넷 쇼핑물, 여행 및 숙박 예약 사이트에 대한 무수히 많은 광고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쇼핑물 업체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래에는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굳이 인터넷 망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생겨난 추가적인 개념이 O2O (online to Offline) 입니다.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위치 확인 기술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위치를 연결함으로써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Go-Jek(고젝), Grab(그랩), Uber(우버)와 같은 운송 서비스와 전자 상품권(E-voucher)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 기고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인분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몇몇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소개 해 드리고 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도 간략히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물

옷, 신발, 화장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 유형의 상품 뿐 아니라 pulsa(Pulsa), 호텔 숙박, 비행기 티켓 등 무형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물로는 Qoo10, Tokopedia, Lazada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물은 물건을 공급할 판매자(개인, 업체 포함)를 모집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를 통하여 구매자들을 끌어들여 거래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2

거래가 발생할 때 생기는 수수료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별도의 광고비가 쇼핑물의 수익원이 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쇼핑물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를 기입하고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가입할 때 제공 받은 할인쿠폰을 이용하거나 적립 포인트 등을 통해 물건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온 디맨드(On demand) 서비스

인도네시아에서는 Go-Jek(고젝), Grab(그랩), Uber(우버) 같은 운송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을 소유한 개인들이 휴대폰 앱을 통하여 드라이버(공급자)로 등록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택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일반 택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행선지를 주문시 미리 입력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고젝의 경우 오토바이를 통한 운송뿐 아니라 심부름, 배달, 음식 주문, 청소, 마사지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확장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즘엔 한국 식당도 고젝에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구매여 차 막히는 길거리에서 시간 낭비 하지 않고 집에서 한국음식을 배달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랩이나 우버의 경우는 오토바이보다도 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차차 택배 서비스도 추가한다고 하니 집에서 가구 같은 대형 물품을 그랩이나 우버를 통해 배달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

전자 상품권(E-voucher)

말 그대로 종이가 아닌 고유코드와 바코드가 기입되어 있는 전자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메일이나 휴대폰에 저장하여 매장에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 상품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로 제품 및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품권을 종이로 인쇄하는 기본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과 가치가 큰 상품만 상품권으로 만들 수 있었으나, 전자 상품권이 생기면서 커피 한 잔, 빵 한 개 같은 비교적 적은 금액과 가치의 상품도 상품권화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달 비용이 발생하는 종이 상품권과는 다르게 전자 상품권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휴대폰 문자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 없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메신저나 인터넷 쇼핑물을 통한 전자상품권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생일 등의 특별한 날 선물이나 일상 속에서의 가벼운 선물로 전자 상품권이 인기가 좋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용돈의 일부로 햄버거 등의 음식 전자 상품권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BBM Messenger나 Qoo10을 포함한 몇몇 인터넷 쇼핑물에서 전자 상품권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누구의 지갑을 먼저 채워야 경제가 좋아질까?

글: 우리소다라운행 김용욱상무

한 국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용어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TV나 영화에서 가끔 접하게 되는 파티장의 장면 중에서 술잔 여러 개를 아래에서 위로 포개어 놓고 맨 위에 있는 잔부터 술을 따르게 되면 위에 있는 잔들은 흘러넘치게 되고, 넘친 술은 아래 잔들로 흐르게 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위·아래의 모든 잔에 술이 가득 차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나온 용어가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 잔에 해당되는 경제 주체인 대기업의 수익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전반에 걸쳐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파급효과들로 인해 아래 잔들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결국 증가하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낙수 효과’라는 말의 유래는 대공황이 미국 경제를 덮친 1930년대 초 당시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상류층에 이동한 돈이 제발 빈민들에게도 흘러가기를 (trickle down) 바란다”라고 비꼬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낙수 효과’를 내세우는 경제정책은 미국의 공화당에서 주로 주장되어 왔으며,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도 이러한 낙수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충분치 않은 국가 환경하에서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데 집중했고, 대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성장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고용과 매출이 늘자 소비도 자연히 늘어났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낙수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 ‘분수 효과(Fountain effect)’입니다.

‘분수 효과’는 국가주도의 정책실행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면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매출과 투자가 늘어나 결국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는 분수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야 국가 경제전체가 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낙수 효과’와 반대되는 ‘분수 효과(Fountain effect)’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세웁니다. ‘분수 효과’를 선호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쥐여 줄 경우 여유가 있는 부유층보다 여유가 적은 저소득층이 소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분수 효과’가 경기 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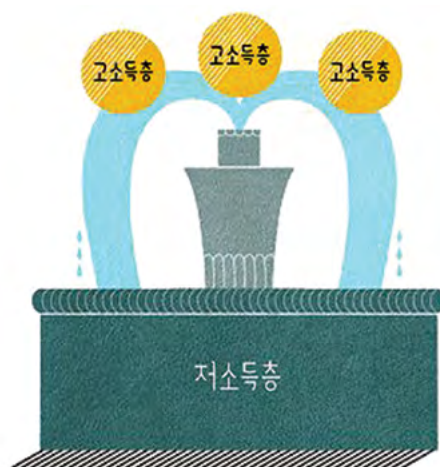
이러한 ‘분수 효과’의 단점은 경기침체에 맞서 정부지출을 늘리지만 경기회복보다는 오히려 물가만 오르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에 빠진 유럽 국가들도 ‘분수 효과’를 기대하며 정부 지출을 늘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정책을 보면 최근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정부의 세원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나 항만 등의 대규모 SOC 기반 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수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이 과연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누구의 지갑을 먼저 채우고 그것을 통해 경제전반의 걸쳐 회복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6억명의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경우 ‘낙수 효과’보다는 ‘분수 효과’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방향성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수진작과 소비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낙수 효과’가 좋으냐? ‘분수 효과’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립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정책입안, 그리고 강력한 실행 추진력만이 최초 계획한 기대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일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제정책 방향이든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빠른 시일내 회복되어 기업체와 개인 모두가 좀 더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인니 정부, 차량중량계측기 직접 운영... “과적차량 근절하겠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가 21일부터 과적차량을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중량계측기 25기를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 ‘2014년 제23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중량계측기를 관리,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과적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환경과 구조물 내구성 향상을 도모한다.

현지 언론 끈판의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와 공공국민주택부, 국가 경찰이 이날 트럭 중량계측기 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교통부 육상운송국의 뜻지 하르판또 국장은 “대형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 도로 포장의 밀림·균열이 발생, 단속 등 통행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중량계측기를 운영·관리할 민간 기업은 입찰을 통해 정해진다. 하르판또 국장은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총 141기의 중량계측기를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뇌물과 부패가 만연해 과적차량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 올해 인니 경제성장률 5.2% 예측

13일 세계은행(WB)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반기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2%,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5.3%, 5.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과 경기 안정세로 가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작년 6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3%, 2018년과 2019년은 3.8%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가인상의 주요 요인으로서는 전기요금과 자동차·오토바이 차량등록증(STNK) 등의 발급 수수료 인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차 앱 ‘최저운임료’ 규정 최종 통과… 유예기간 3개월 가진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최저운임료 설정’ 규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렸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지 언론 뎀뽀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저운임료 설정은 이날 발효된 배차 앱 사업자를 규제하는 교통장관령 ‘2016년 제32호’ 개정령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배차 앱 사업자와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 등의 격렬한 반대로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샤르카위 라우프 KPPU 위원장은 “최저운임료 설정은 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운임료 상한선 정도만 정하면 된다”고 말하며 “자칫하면 전체 택시요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디 교통장관은 3월 3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개정령에 포함된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4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중



사자들의 반대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3개월간 유예기간 이후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구체적인 운임료의 하한선 및 상한선을 설정,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른다.

한편, 배차 앱 이용자는 “지금의 운임료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배차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고 1일 국영 안파라 통신이 보도했다.

CBD 오피스 임대료 하락 가속화, '2019년부터 임대료 오를 것'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CBD 임대료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의 중앙 상업 지구(CBD)의 사무실 시장이 공급 과다에 따라 임대료 하락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 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곧 수요가 증가해 향후 2 ~ 3년 내에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이 연달아 발생할 것이라는 평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BD 사무실 입주율은 84%로 전년 동기의 94%에서 10%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비싼 A 등급 사무실에서는 73% 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도 전년 동기 대비 5.5% 떨어진 4.7%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B 등급 사무실 입주율은 89%, C 등급 사무실은 90%였다.

2017년도에는 자카르타에 총 12개의 오피스 빌딩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73만 평방미터 규모이며 2018년에는 오피스 빌딩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공급량이 2017년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사무실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 기업과 금융 기관의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B, C 등급보다는 A 등급 사무실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8 ~ 19년까지 공급량 과다가 일단락되는 동시에 안정된 수요를 배경으로 임대료가 바닥을 친 후, 20 ~ 21년에 걸쳐 임대료 상승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MRT 개통 예정인 2019년부터 MRT 인근 사무실 임대료 상승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카르타 남부 임대료 하락

조사 자료에 따르면 CBD 지역 이외의 자카르타 사무실 공급도 전년 대비 6.6%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자카르타 남부에만 총 9개의 오피스 빌딩이 완공된다. 2020년까지 중앙 자카르타와 서부 자카르타에 사무실 공급량이 늘어나, 2020년까지 중앙 및 서부 자카르타 신규 사무실 공간의 60%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2017년 1분기 사무실 점유율은 중앙 자카르타 90%, 남부 자카르타가 75%였다. 한편 남부 자카르타 시마뚜쌍 지역에 한정해 사무실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고 입주율도 66%로 하락했다. 임대료도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 향후 자카르타 남부를 중심으로 오피스 공급 과잉을 원인으로 한 임대료 하락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CBD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 쇼핑물 수요 증가로 임대료 상승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가 물 및 상업시설에 대해 신규 건설을 허가 하지 않고 있는 바 공급 감소와 수요 과다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치에 따르면 기존 쇼핑물의 입주율은 89%로 외식 산업과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수요가 왕성했다. 아울러 가구점이나 전자기기매장 수요도 높은 편이다. 한편, 패션과 고급 잡화 부문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대료는 자카르타 기준 전 분기 대비 4% 증가한 1평방미터 당 평균 58만 7,904 루피아, 고급 물은 70만에서 200만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카르타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에서는 서부 자바 데벙 임대료가 급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는 평균 2.6% 상승한 평균 35만 3,790 루피아였다.

인니 자카르타 주지사, 신성모독 논란 끝 재선 실패

19일 실시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결선투표에서 무슬림 후보가 중국계 기독교도인 현 주지사를 상당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현지 유력지인 일간 콤파스의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98% 개표가 완료된 이날 오후 4시 45분(현지시간) 현재 아니에스 바스웨단 전 고등교육부 장관이 58%를 득표해 42%를 얻은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현 자카르타 주지사를 크게 앞섰다.

인도네시아서베이연구소(LSI)와 사이폴 무자니 리서치앤컨설팅(SMRC) 등 여타 여론조사기관들이 집계한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이에 아니스 전 장관은 곧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는 “이제 우리는 새 장을 열고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니스 전 장관과 연대해 온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도 “우리는 이제 새 주지사와 부지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혹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패배를 인정하고 “남은 임기 6개월간 지금껏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아혹 주지사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59%에 이르러 재선이 확실시됐지만, 같은 해 9



월 그가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이슬람 경전 코란을 모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슬람 강경파들은 이를 빌미 삼아 작년 하반기부터 자카르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거듭 열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고, 경쟁 후보들도 비이슬람교도와 중국계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면서 심각한 정정불안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혹 주지사의 패배로 인도네시아 이슬람교도 사회의 과격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아혹 주지사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2019년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대권 도전의 디딤돌로 여겨진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는 아니스 전 장관의 후견인 격인 프라보워 총재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는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라보워 총재는 지난 2014년 대선에서 다크호스로 등장한 조코위 대통령에게 석패한 뒤 대선 불복을 선언한 전력이 있다.





"르누아르 부자의 황홀한 예술, 그리고 숨겨진 사랑!"

- 르누아르의 여인들

영화 《르누아르(Renoir)》는 2012년 공개된 프랑스 리베리아를 배경으로 오귀스트가 마지막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아들 장이 아직 영화감독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의 이야기를 다룬다.

1915년 인상파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꿈에 그리던 여인 뮤즈 데테를 만나 다시 예술혼을 불태운다. 르누아르의 누드 모델이 된 배우 지망생 데테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르누아르의 아들 장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귀스트의 병은 악화되고 장의 부대 복귀 날 짜는 다가오는데...

데테가 그림을 그리다가 오귀스트 르누아르에게 질문을 한다.

“애들처럼 그랬죠?” “잘 그랬어. 애들처럼 그리는데 내 인생 목표였어.”

이 대목에서 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말년으로 갈수록 아이처럼 순수하고 천진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복잡한 그림보다 단순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했다. 그의 그림에는 검은 색을 쓰지 않았다. 그의 말년에 세계 1차 대전으로 두 아들이 부상을 당하여 무척 아파한다.



가난, 질병, 전쟁 등 인생 자체가 어두운 것이므로 그는 밝음을 지향한다. 어두운 그림보다 밝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했다.

초기에는 클로드 모네와 같이 인상주의 화풍을 선보였으나 후기에는 인상주의에서 벗어나 풍부하고 원숙한 색채 표현 등 자신만의 화풍을 정립했다. 파리 시민의 일상적인 모습을 부드러운 색채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말년에는 류머티즘 관절염을 알았지만 손가락에 붓을 매고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 중 그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 여성을 소재로한 그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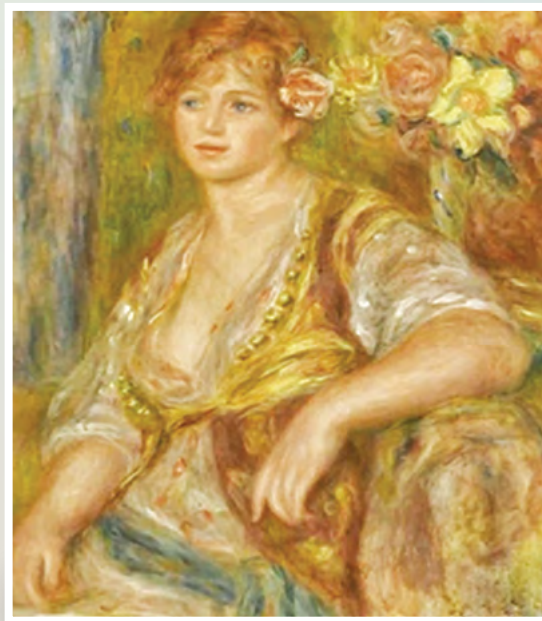
특히 둥글둥글한 몸매를 갖춘 여성을 좋아했다. 아들 장 르누아르가 쓴 <나의 아버지> 중에서 “나는 여성을 좋아해. 여자들은 아무 것도 의심하려 들지 않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은 정말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변하지” 라고 했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앞으로도 볼 수 없을 르누아르 부자의 예술 세계!

“마치 명작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 단언컨대 가장 아름다운 그녀, 르누아르가 선택한 데데! 르누아르가 사랑한 단 한명의 뮤즈! 시대를 그려낸 르누아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영화에서 등장한 “데데” 라 불리우는 여인은 르누아르가 좋아했던 여성상을 모두 갖춘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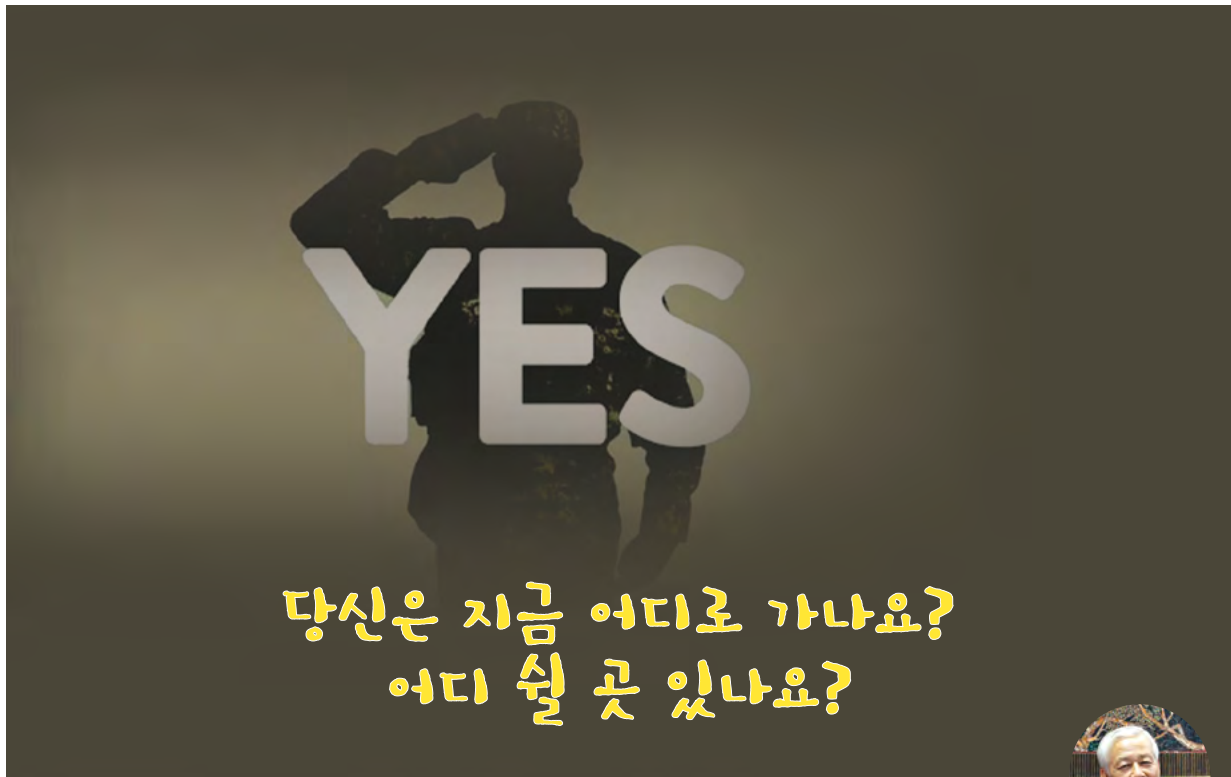
인상주의란(Impressionism)? 1860년경 프랑스에서 시작된 새로운 미술의 경향으로, 빛과 색에 대한 화가의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느낌, 즉 인상(Impressionism)을 표현하고자 한 회화 중심의 미술운동이다.



<장미꽃을 꺾은 금발 여인 /1911, 캔버스에 유채, 55.5*47cm 프랑스 오르세미술관>

<참고: 씨네 21>

글/ 김은정 (한인미협회원) kimejart0@gmail.com



한 상 재 / 한국문협 인니지부 고문
hansangjae@gmail.com

최 근 우리는 두 편의 장편 드라마를 본 것 같다. 하나는 세월호 침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다. 이 두 드라마는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을 깔고 있다. 그렇지만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서로 겹치기도 하고 배치되기도 한다.

문제는 연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연출하는 드라마길래 이렇게 오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이는 국회가 연출을 맡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측면도 있다.

세월호 드라마는 이미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는 재방송을 하고 있고 탄핵 드라마와 연계까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두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하여간 우리는 좋은 싫든 이 두 편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다.

이 두 편의 드라마는 우리를 공통적으로 슬프게 한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최악의 드라마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는 꽃다운 청춘들을 차가운 인당수에 던졌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미혼의 여성 대통령을 차가운 감옥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비극의 종말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잊을만하면 다시 재방송되는 마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풍의 드라마가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 때문일까? 최악의 슬픈 스토리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그런 미망의 작품세계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의 드라마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드라마의 종방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지 그 누구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계속 헤매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한 사람은 이런 현상을 ‘정보경제학’의 ‘에스맨 이론’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 좀 엉뚱한 이론을 가져다 대는 것 같지만 그런대로 적절한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두 드라마 모두 정보의 부재가 존재하고 ‘에스맨’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두 편의 슬픈 드라마가 ‘정보경제학’의 ‘에스맨’ 이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그건 이렇다. 세월호 드라마를 보노라면 정말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선장과 승객 간에 정보가 전혀 흐르지 못했고 항해사나 선원들도 선장과 ‘에스맨’ 이론에 충실했다고 생각된다.

청와대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지금 밖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정보가 흘러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정보를 갖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이 그것을 틀어 쥐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에스맨’ 이론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마 세월호 선장은 침몰 당시 자기 수하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 난 것인지 확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책을 물어 봤을 것이다. 분명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과 침몰하는 배 밖에는 적은 수의 구조선이 대기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했을 것이다. 또 거기에 맞는 대책도 보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장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자기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수하 선원들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들만 빠져 나왔다. 여기에 정보 부재가 있다. 아무도 선장의 결정에 반대를 하지 않았다. 선장은 외부에 와있는 구조선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 탈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장의 질문 요지가 뭔지 잘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찬성하고 자기들만 탈출했다고 본다.

이런 현상을 자초한 것은 선장 자신이다. 선장이 항상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게 ‘에스맨’ 이론의 기초다. 이미 선원들은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왔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탄핵드라마도 거의 같다고 본다.

이미 박 대통령은 세간의 정보를 다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 비서들이나 장관들이 뭐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탄핵 드라마가 전개되었다고 본다. 언제나 그들은 대통령의 질문에 반대를 해 봤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도 ‘에스맨’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에스’는 그런대로 자기를 숨길 수 있지만 반대는 자기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숨길 수 있는 대통령의 질문에 항상 ‘에스’를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뭐든지 그런 대답을 요구한 지도자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단체도 마찬가지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보면 그렇다.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이 부회장의 질문에 언제나 ‘에스’로 대답했을 것이다. 또 이 부회장도 ‘에스’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이 문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에스맨 이론’에 근거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데는 적지 않은 고충이 따른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가령 우리가 운전수에게 타이어 교환을 지시하면 그들은 반드시 가격을 속인다. 그것이 정보의 부재다. 외국인들은 그 타이어의 종류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의 부재가 발생한다. 또 무언가 부정할 것을 해도 되느냐고 질문하면 그들은 그 주인의 질문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답한다. 평소 주인의 질문이 ‘에스’를 원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것이 ‘에스맨’ 이론이다. 그러나 그건 주인의 최종 책임을 수반한다. 중간 정보 자나 ‘에스맨’은 전혀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싫든 두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어디로 피할 곳도 없다.

아무리 드라마가 심해도 우리는 그걸 묵도해야만 한다. ‘세월호’라는 막장 드라마도 봐야 하고 탄핵의 충격도 이겨내야 한다. 촛불도 켜야 하고 태극기도 걸어야 한다. 우리의 북쪽엔 핵폭탄도 이겨내야 하고 서쪽에서 밀어 부치는 중국의 인해전술도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좋은 싫든 손잡고 같이 가자는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할 것이고 덩치 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세월호와 탄핵 드라마 두 편을 보면서 우리의 외곽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다시 그려본다. 우리의 국내적 웅졸함 때문에 더 크게 벌어지는 주변국 드라마를 애써 외면해서는 위험하다. 이것 또한 정보의 부재가 우리를 강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이 마치 ‘알타회담’

처럼 벌이는 외교 잔치에 그저 ‘예스맨’ 이론처럼 그냥 따라만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뭔가 우리도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스맨’ 이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어디 쉴 곳 있나요?’ 당신이 어둠을 헤매면 우리는 더 헤매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앞장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시대를 마련해 주시렵니까? 우리를 낳아준 나라,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준 나라, 우리를 이렇게 의젓하게 만들어 준 나라, 거기에 머물고 싶다.





여기~ 맛있어요!

All You Can Eat 일본식 샤부샤부 음식점 Shaburi 와 Momo Paradise

글: 이승진 (한인회간사)



한국식의 분식을 포함한 한식이 현지인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미 한식뿐만 아니라 일식, 정통일식보다는 Sushi Tei, Hokben과 같이 현지인 입맛에 맞게 변형된 일식이 현지 대중들에게 더 익숙하다. 샤부샤부는 끓는 육수에 쇠고기, 버섯, 곤약, 오뎅 그리고 각종 채소 등을 뜨거워 육수에 담가서 살짝 익혀 먹는 음식입니다. 샤부샤부라는 말을 언급하고 나니 문득 떠오른 생각은, 글썽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All you can eat 이라는 문구에 환호를 하며 적극적으로 식사에 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Makan Sepuasnya’에서 적당히 잘 먹는 ‘Makan Moderasi’로 임하고 있다. 그리 믿고 싶다.

이제서야 본론을 꺼낸다. Shaburi와 Momo Paradise는 일본식 스타일로 현재 인기있는 샤부샤부 음식점이다. Shaburi는 인기에 힘입어 자카르타 주요 몰에 위치하고 있고 12곳의 분점이 있다. 특이한 점은 전골형태가 아닌 개인 단독으로 전골냄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육수는 기본 가쓰오부시 육수, 스끼야끼, 닭육수, 미소육수 등이 있으며, 다양한 채소가 준비되어 있다.

Momo Paradise는 Pandai Indah Kapuk (PIK)에 위치하며 새로 오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샤부샤부집이다. 특이한 점이 김치육수가 있다. 김치 육수는 매운맛이 있지만 특유의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소가 있지만, Shaburi에 비하여 채소의 가짓수가 적고, 예피타이저의 종류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쉬웠다.

샤부샤부의 꽃인 고기의 맛과 식감은 개인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Momo Paradise가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Shaburi보다 맛이 좋았다. 글썽이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 입맛인지, ‘김치 육수’ 국물음식을 먹어도 진짜 ‘김치’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특별히 90분의 식사 제한 시간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가면 좋을 듯 하다.

Shaburi:

Rp600.000 for two people (approx.)
Pacific Place Mall, Lantai 5,
Jl. Jenderal Sudirman, SCBD, Jakarta
021 57973247

Momo Paradise:

Rp400.000 for two people (approx.)
Ruko Crown Golf, Blok D No. 18-19,
Bukit Golf Mediterania,
Jl. Marina Indah Raya, PIK Jakarta
021 21889061



이 표현이 맞나요?

글: 최서혜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유용한 단어 'Kali'를 살펴볼까요. **Kali**는 지류, 하천(**sungai**)를 뜻하는 것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Kali

①~회, 번, 차례

Aku maafkan kamu kali ini, tapi jangan ulangi lagi, ya. (내가 이번엔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거라.)

Dia ke bali sudah beberapa kali. (그는 이미 발리에 여러 차례 갔었다.)

Dia senang pergi ke luar negeri untuk pertama kalinya. (그는 처음으로 외국에 가게 되어 신이 났다.)

②곱, 배, 곱하기

Dua kali tiga menjadi enam. (2 곱하기 3은 6이다.)

Dua kali dua sama dengan empat. (2 곱하기 2는 4이다.)

Harga baju di mal itu 2 kali lipat dari harga grosir di pasar tanah abang, tapi kualitasnya jauh lebih tinggi.(또는 jauh lebih bagus).

(쇼핑몰 의류가격은 파나 아방 시장의 도매가격의 2배이지만, 품질은 훨씬 좋다.)

③아마, 어쩌면

Barangkali(아마, 어쩌면)과 같은 표현으로 "**ya, kali**(네, 아마도요)"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mungkin'과 쓰임이 비슷하다.

#Kali에서 파생된 다양한 표현

–**berkali-kali**는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여러 번(**berulang-ulang, sering, kerap kali**)라는 뜻이다. **Anda sudah berkali-kali terlambat.**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지각했습니다.)

–**sekali**는 **satu**와 **kali**가 합쳐져 한 번, 한 차례라는 의미가 있지만, 매우 아주, 몹시라는 뜻으로 **senang sekali**(매우 기쁜)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Sekali produksi banyak은 한 번에 많이 생산하다 즉, 대량생산을 의미하며 **dua hari sekali** (이틀에 한 번), **seminggu sekali**(일주일에 한 번) 등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쓰인다.

–**Sekalian**은 모두, 전부, 동시에, 함께라는 뜻이 있다. **Kalau pergi ke pasar, sekalian belikan saya tempe.** (시장에 가면, 내 떡볶이도 함께 부탁해)

–**Sekaligus**는 모두 한꺼번에, 일시에라는 뜻으로 **Semua pejerjaannya diselesaikan dengan sekaligus.** (그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끝냈다).

–**Sekalipun**은 비록 ~일지라도, 비록 ~이기는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meskipun, walaupun**과 같은 의미이다. **Sekalipun dia sakit dia masuk kantor juga.** (그는 비록 아팠지만 출근했다.)

–**Sekali-sekali**는 때때로, 종종이라는 뜻이며 **jarang, kadang-kadang**과 같은 표현이다.

Biasanya dia nonton film di rumah, tapi sekali-sekali dia nonton film di bioskop. (그는 보통 집에서 영화를 보지만, 때때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한다.)

–**Sekali-kali**는 전혀, 도무지, 온전하라는 뜻이며, **sekali-kali tidak**이나 **jangan sekali-kali**등 보통 부정표현과 함께 쓰인다. **Komputer itu sekali-kali tidak bisa diperbaiki.** (그 컴퓨터는 전혀 고칠 수가 없다.), **Jangan sekali-kali berjalan sendirian.** (절대로, 감히 혼자 여행하지 마시오.)

–**Kalian**은 **sekalian**을 줄인 것으로 당신들, 너희들이라는 뜻이다.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네가 웬 일이야?

니가 웬 일로 안 늦었네? “**Tumben, kamu ga telat?**” 웬 일로~ 라는 표현은 **tumben**(뚝뚝)이다. 평소와 다르게 신랑이 야근을 안하고 일찍 들어왔을 때도 “**Tumben pulang cepat, ga lembur**” (웬 일로 야근 안하고 빨리 왔네?) 쓸 수 있다. **Lembur**는 야근, 시간 외 근무이다.

#우연히! 다행스럽게도!

Untung(행운), **mumpung**(운이 좋게도), **kebetulan**(우연히도)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예) **Untung aku bawa payung, lagi gerimis.** (우산 가져오길 잘했다, 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네.)

Mumpung masih ada es di freezer, Mr. Lee mau minum es kopi.

(냉동실에 아직 얼음이 있어서 다행이다. 미스터 리가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싶대.)

Aku mau beli baju batik, kebetulan ada pameran batik di mal kemang.

(내가 바벳옷을 사고 싶었는데, 우연히도(딱!) 꼬망 몰에서 바벳 전시회가 열렸네.)

#입맛이 없어요~

Saya sedang tidak ada nafsu makan.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malas makan** 이있다. **Mulut terasa pahit** 입이 쓰다. **Cara meningkatkan nafsu makan** 식욕을 깨우는 방법, **cara mengurangi(menurun) nafsu makan** 식욕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뜻. 관련 단어로 비만은 **kegemukan** 또는 영어에서 온 **obesitas**이 있으며 반대어로 너무 말랐다는 표현은 **kekurusan**을 쓴다.

#택배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Pak, minta titip ke front office. 맡기다는 표현은 **titip**이다. 경비실, 프론트오피스와 비슷하지만 호텔에서서는 콘시ерж (Concierge, 호텔 안내원)라고 말한다. **titip**에서 파생된 **Titip beli**는 구매대행이라는 뜻이며, ‘대신 사다주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등을 살려라? 죽여라?

에어컨, 전등, 컴퓨터 등을 켜고 끄다는 표현은 **hidupkan**(켜라), **matikan**(꺼라)이다. **hidup**은 살다, **mati**는 죽다는 뜻이다. 다소 어감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

“연탄불을 또 죽였니, 연탄불을 살려라”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기계를 작동시키다, 불을 켜다는 표현을 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불꽃, 화염이라는 의미의 명사 **nyala**가 있다. 자동차 엔진이나 기계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면, **masih nyala**(아직 켜져있다.) 작동시켜라, 켜라는 **menyalakan**(켜다), 회화에서는 접두사 **me-**를 생략한 **nyalain**을 자주 쓴다.

접미사 **kan**은 회화에서 **in**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예) **Wah, Lampu ruang tamunya mati. Tadi aku coba nyalain(hidupkan) lampu itu, tapi tetap mati. Kayaknya lampu itu harus diganti. Kata teknisi, starter(fitting) juga sudah rusak.**

*전등(Lampu), 소켓(starter, fitting)

#응급실

응급실은 보통 **UGD**(우게테)인데 **Unit Gawat Darurat**의 약자다. **Gawat**과 **darurat**, **urgen**은 ‘응급’이라는 뜻이며, 응급 환자는 **pasien darurat**, **pasien gawat**, **pasien gawat darurat**, 응급 상황은 **keadaan darurat**, 구급차는 **mobil ambulance**, 비상구는 **pintu darurat**이다.

예) **Minta panggil mobil ambulance, ada pasien darurat di sini! Dia sedang dalam kondisi tidak sadar, jadi dia harus cepat dibawa ke UGD terdekat.**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여기 응급환자가 있어요! 지금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빨리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다/회복하다

Sembuh(병이 낫다, 회복되다, 완쾌하다)와 **pulih**(회복), 치료(**pengobatan**), ‘낫게 하다’는 동사는 **sembuh**의 동사형 **menyembuhkan**과 **obat**의 동사형 **mengobati**이 자주 쓰인다. **Pulih**(회복된, 복구된, 개선된)의 동사형 **memulihkan**도 가능하다. 치료, 치유를 명사로 쓰려면 **ke-an**의 형태 **kesembuhan**을 쓴다.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을 만나면 **sudah sembuh/sudah sehat?**(완쾌되었어요?)라고 안부인사를 건네보자. 그럼 상대는 **lagi masih sakit**(아직 완쾌되지 않았어요, 아직 아파요)/**Sudah sembuh**(다 나왔어요.)/**Lumayan, tapi belum sembuh**(아직 아프지만 꽤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관련 단어를 살짝 살펴보면 약은 **obat**, 약국은 **apotik**, 약이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manjur**와 **beraksi**, 효능은 **kemanjuran**, 주사는 **suntik**, 링거를 맞다는 표현은 **infus**, 입원하다는 **rawat inap**, 입원환자는 **pasien rawat inap(pasien opname)**, 통원환자는 **pasien rawat jalan**, 세균은 **kuman penyakit**, 감염은 **infeksi**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1주일 약을 먹고 경과를 지켜본 뒤, 다음주에 오세요”라고 말할 때 **kontro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 참고할 것.

예) **A: Anak saya batuk terus dan kadang ada demam juga.**(제 아이가 기침을 계속하고, 가끔 열도 납니다.)

B: Saya sudah cek hasil tes darah, tapi tidak ketemu virus.(피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Saya coba kasih obat demam dan batuk, ya. Kita coba diuap pakai nebulizer dan minum obat demam yang berbentuk sirup, kontrol selama seminggu, nanti hari senin kembali lagi.**(해열제와 기침약을 드릴게요. 네불라이저 치료=증기를 이용한 치료와 시럽 약 투여를 1주일 간 해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봅시다.)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도 없어요?

Seorang pun tidak datang.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Ini pun tidak ada? (이것도 없나요?)

한국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속담과 비슷한 다람쥐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이다.

Sepandai-pandainya tupai melompat sekali akan jatuh juga.

*Tupai는 다람쥐, melompat은 뛰다(점프하다)

Orang pintar pun bisa salah. 똑똑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누구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

#지친, 따분한

*Bosan*이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Membosankan*은 지치게 하다(따분하게 하다)라는 동사 표현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jemu*가 있다.

Saya jemu(bosan) dengan tugas hari ini. (오늘 이 과제 때문에 지친다.)

Saya sudah bosan dengan beberapa kali meeting(rapat) tapi tidak ada hasilnya.

(많은 회의가 있었지만, 성과도 없어 나는 지쳐버렸다.)

또,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bete* (BT=boring total)가 있다. *Bete, ah!* (아 지루해!),

Bete banget! (진짜 지루해!)

#함께하다

*Bareng-bareng*의 뜻은? ~와 더불어, ~와 함께 라는 뜻이다. *Sama-sama*나 *secara bersamaan*과 같은 의미다. *Sama-sama*는 일상 대화에서 “천만에요~, 별 말씀을~”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함께~, 서로~, 상호간~이라는 의미로 *saling*과 같은 뜻이다. *Saling menolong*(=*kenja sama*)은 상호 협조, *saling menukar opini*는 상호 의견교환, *bahu-membahu* 서로 돕는다는 동사 표현과 어깨동무라는 뜻도 있다. *gotong royong*는 상부상조라는 뜻이다.

#폭탄주세요?

Minta bon~(민따 본~)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Bon*은 영어로 *bill*이다. 발음을 할 때 *bom*(폭탄)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영수증은 *kwitansi*, 청구서는 *tagihan*이다.

예) A: *Permisi pak, Kelihatannya bapak belum bayar biaya untuk bulan Maret pak.* 실례합니다. 여기는 텔콤입니다. 손님께서는 아직 3월 분을 지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B: *Maaaf, ceritanya begini, bu. Bulan ini tagihannya datang terlambat. Kemaren saya baru bayar bu. Bisa dikonfirmasi(dicek) setorannya sekali lagi?*

(미안합니다. 사실은 청구서가 늦게 와서요, 지난 달 분은 어제 바로 지불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입금 내역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장점과 단점 (ke - an 명사형)

장점, 우위, 탁월한 점을 말할 때는 *keunggulan*, *kelebihan*을 자주 쓴다. *Kekuatan*은 강점이나 파워(힘, 권력 등)를 의미할 때, *kemampuan*은 가능성, *keahlian*은 전문성, *kebijakan*은 똑똑함과 현명함(*kepandaian*), 능숙함은 *kemahiran*, *kebijaksanaan*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Kebijakan*은 정부정책을 표현할 때(*kebijakan pemerintah*)도 자주 쓰이는 단어다. 단점은 *kekurangan*, 약점은 *kelemahan*, *titik lemah*이다. *Kesulitan*, *kesukaran*은 어려움과 곤경, *kecacatan*은 장애, *halangan*은 장애물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숨어 있다!

우리는 대화나 글쓰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칙을 인용한다.
법칙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다양한 일들을 둘러
싼 법칙, 효과, 이론 등을 다루고 알아보자.



컨벤션 효과 Convention effect

정치적 이벤트 후 지지율이 급등하는 현상. 전당대회나 경선행사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에서 승리한 후보나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이 용어는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널리 응용되고 있다. 보통 후보들은 전당대회를 거치면 인지도가 상승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컨벤션 효과가 반짝 상승인지, 아니면 견고한 지지층의 확장인지 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레샴의 법칙 Gresham law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는 법칙. 여기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거나 ‘만들거나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쫓아내고 몰아낸다는 뜻이다. 가치가 높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실질가치가 낮은 물건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다. ‘그레샴의 법칙’은 경제학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적용된다.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이다. 금과 현금10만 원을 비교해보자.



실질적 가치는 금이 더 높다. 그런데 실질적 가치가 있는 금은 사용하지 않고 10만 원이라는 종이를 사용한다. 이때 악화(10만 원)가 양화(금)를 구축(몰아낸다)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서로 경쟁을 벌이는 것들에 대해 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서서히 밀어내어 시장에는 나쁜 것만 남게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들이 휘발유 엔진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전기자동차 판매를 늦추는 것, 불법 다운로드가 일상화되면서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인력관리에 소홀한 회사에서 자질이 우수한 인재는 떠나고 열등한 인력만 남게 되는 것 등이 그 예다.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즉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밴드왜건 효과 Band-Wagon effect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뜻과 같다. 어떤 재화에 대해 수요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경향에 따라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다. 즉, 타인의 사용 여부에 따라 구매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유행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은 나도 산다는 모방 소비심리에서 비롯된다. 곡마단이나 축제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풍악을 울리는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뒤를 줄줄이 따라가는 모양을 빗댄 용어다. ‘밴드왜건’은 퍼레이드 행렬의 가장 앞에 위치하는 악대 차량.

영어로 ‘밴드왜건을 탄다는 것’은 곧 시류에 편승한다는 의미다. 유행에 민감한 여성복

시장에서 특정 패션의 유행이나 국제 금융시장,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에서 보이는 ‘묻지마 투자’ 등이 그 예다. 이런 현상을 기업에서는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선전과 광고 활동에 밴드왜건 효과를 이용하는 기법이 자주 사용된다. 정치계에서는 특정 유력후보를 위한 선전용으로 활용한다.



[편집부]

인도네시아 민법(16)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6. 불법행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통치정부가 1848년 4월 30일 공포한 민법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네덜란드어로 된 민법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쓰고 있으며 번역된 민법의 내용 상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번역자에 따라 문장상의 차이는 적지 않다. 170년전에 제정된 민법의 내용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들이 있으며, 식민통치정부가 제정한 법률을 독립한 지 72년이나 된 국가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나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문제삼는 인도네시아인이 별로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이다.

불법행위는 네덜란드어로는 onrechtmatige daad 로 표기하나 인도네시아어로는 사람에 따라, i)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Perbuatan yang bertentangan dengan hukum), ii) 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Perbuatan yang bertentangan dengan azas-azas hukum), iii) 법규를 어긴 행위(Perbuatan yang melanggar hukum), iv) 법규에 위배되는 조치(Tindakan melawan hukum), v) 민사상 비정상 행위 (Penyelewengan perdata) 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어로는 불법행위로 번역한다.

16.1. 불법행위의 뜻

불법행위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피해자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민법 제 1365 조는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형법

을 위반한 형사상의 위법행위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하거나, 해야 하는 사항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사상의 위법행위로 구분이 되나,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불법행위는, 민사책임을 묻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제한한다. 형사책임을 범법자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민사책임을 피해자의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재판도 형사재판과 민사 재판으로 분리되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민사 책임이 자동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범법자가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을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범법자는 형사상 및 민사상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16.2.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행위로 성립된다.

16.2.1.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을 행하였거나 법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민법 제 1457조에 따라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파는 물건을 넘겨줘야 하며,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물건 값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16.2.2. 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며,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16.2.3.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 1366 조).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미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형사에서는 고의의 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6.3. 불법행위의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혹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비슷하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회복 등을 명할수 있다.

16.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기로 한 것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비용,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스테이지 제작비, 광고비,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보내 광고주로부터 반기로 되어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광고료 손해를 뜻하며, 이자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배상을 받는 날까지의 손해배상 청구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년리 6%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이 월 2%로 되어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인점 때문에 금전 피해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 지켜가야 할 자산



베르사유 궁 복원 계획에 참여한 전 세계 기업들이 문화재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지 않은 돈을 후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며,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곧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후광효과는 이미지가 중요한 소비재나 명품 제조업체에서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다. 명품의 이미지를 품위 있고 세련되게 유지해 결과적으로 많은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한다. 특히, 급속하게 늘고 있는 중국, 동 유럽, 남미 등의 잠재 고객들에게 ‘공공 복원사업에 참여하는 전통 있는 명품 제조업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3년 베르사유 궁 복원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그랑 베르사유’로 명명된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장장 17년에 걸쳐 지속한다. 루이 14세 시절인 1661년부터 건축가 루이 르보, 화가 르 브룅, 정원사 르 노트르 등이 건설한 베르사유 궁은 17세기 최고 수준의 예술이 집적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됐고 4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수 차례의 복원과 개조를 거치면서 본래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었다. ‘그랑 베르사유’ 프로젝트는 베르사유 궁의 원형을 되찾는 것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작업(2003~2009)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부

분을 보존·복원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2단계 작업(2010~2015)은 북쪽 날개관과 별궁 복원으로, 1·2단계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재는 중앙 날개관을 복원하는 3단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복원 사업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분에서는 기업 메세나가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업체인 뱅시는 베르사유 궁의 꽃으로 불리는 ‘거울의 방’ 복원에 힘썼고, BNP 파riba 은행이 귀족의 방 천장화 복원을 지원했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글로벌기업 ‘로레알’은 루이 15세의 옛 목욕실과 화장실 복원에 참여했다. 아시아 국가 중 기업 메세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일본 기업 중에서는 ‘닛케이’가 루이 16세의 의상보관실을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했다. 고대 로마 유적에 대한 이탈리아 기업들의 복원 활동 로마의 경우, 고대 유적이 집중해 있는 곳이라 보수·복원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화재 보수·복원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가 이탈리아이고, 문화유산 복원에 대한 기업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며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로마의 명소 트레비 분수는 17개월간의 복원과 보수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다시 시원한 물줄기를 뿜었다. 분수 곳곳에 쌓인 이 물질과 그을음이 사라졌고 허물어졌던 조각 작품도 정비를 마쳤다. 트레비 분수의 복원은 이탈리아 명품 업체 ‘펜디’



가 250만 유로를 쾌척한 덕분에 진행할 수 있었다. ‘웬디’는 파올라 분수, 모세 분수, 에로이 광장의 분수 등 로마 시내에 있는 분수 복원에도 28만 유로를 지원했다.

명품 보석업체 ‘불가리’ 역시 영화로 유명해진 스페인 계단의 보수·복원비용으로 150만 유로를 부담했고 콜로세움 복원에는 명품 신발업체 ‘토즈’가 참여했다. 청바지 브랜드 ‘디젤’은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리 알토 다리의 복원에 나섰다. 이탈리아의 기업들이 문화재 보수복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스폰서와 메세나로 나뉜다.

직접 후원하는 스폰서 역할은 로마시가 입찰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복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후원금 규모에 따라 일 정 기간 해당 문화유산을 활용해 광고할 수 있다. 문화 활동을 하는 기업에만 참가 자격을 주는 스폰서 입찰에는 보통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다. 메세나 활동은 로마시와의 협약 체결로 진행되는 순수 기부로 기업의 기부금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현격하게 줄었다. 자구책으로 2010년부터 기업 메세나와 스폰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매년 로마를 찾기 때문에 스폰서 기업들은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정부 예산

이 줄어든 것이 오히려 기업들 41의 문화재 보존 참여를 활성화한 셈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참여하는 명품 업체의 지나친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매년 상당한 세제 혜택과 마케팅 효과를 거두는 등 분명한 이익이 있음에도 지나치게 생색을 내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문화재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는 58개 기업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 IT, 서비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작됐다. 문화재 지킴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은 물론 문화재 감시와 같은 모니터 링, 문화재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지역 단체, 청소년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재 지킴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문화재란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자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월간 문화재 사랑]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주식회사법(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상 감사회(Dewan Komisaris)의 이사(Anggota Direksi) 임시해임권

저희 회사는 아파트를 전문 시공하는 건설회사로서 1명의 대표이사와 2명의 이사 그리고 1명의 대표 감사와 1명의 감사로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시공했던 Pondok Indah지역 아파트 공사시 대표 이사와 1명의 이사가 협력 시공사와 공모하여 시공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중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후 그 차액을 협력 시공사로부터 몰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표감사인 저는 1개월 전 퇴직한 협력 시공사의 임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으며 그 이중 계약서와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시 관련된 이사가 서명한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 및 이사를 계속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 시킬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부정의 의혹이 있는 관련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계속할 수 없도록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제 106조에는

1. 감사회(Dewan Komisaris)가 충분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30일 이내 기한으로 이사를 임시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임시 해임 된 이사는 주식회사법 제 92조 1항과 98조 1항에서 규정한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목적에 부합한 대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임시해임을 서면으로 통보 후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후 관련 이사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만약 30일 이내에 상기 목적의 주총을 소집하지 않은 경우 임시 이사해임권은 법률에 의해 취소되어 관련 이사는 다시 복직이 됩니다.
5. 주총에서는 정식 영구해임 또는 임시해임 철회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총에서 정식 영구해임 또는 임시해임 철회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관련 이사는 다시 회사의 이사로서 근무 가능합니다.

Q

상기 두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사과 경리담당 이사임에도 너무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여 개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형사 고소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관련된 두 명의 이사는 형법 제374조 (Pasal 374 KUHP)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263조 1항 문서 위조죄와 제263조 2항 위조문서 사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각각 징역 5년과 6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병합 시 최고 징역 8년까지 가중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력 시공사 대표도 공사의 내용은 같으나 가격만 다른 이중 계약서인 줄 알면서 두 개의 계약서에 서명한 문서위조의 공범임으로 상기 형법 제 263조 1항 위반에 해당되어 피고소인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A

Tips 1. 상기 2개의 불법행위는 형사소송법 (UU No.8 Tahun1980 tentang Hukum Acara Pidana) 제 21조 4항에 의거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만약 21조 1항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경찰 수사관이 판단시 1차와 2차에 걸쳐서 최장 60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록 처벌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하기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 역시 구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 Pasal 282 ayat (3), Pasal 296, Pasal 335 ayat (1), Pasal 351 ayat (1), Pasal 353 ayat (1), Pasal 372, Pasal 378, Pasal 379 a, Pasal 453, Pasal 454, Pasal 455, Pasal 459, Pasal 480 dan Pasal 506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Tips 2. 이사 해임건으로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에게 개별 서면 또는 신문으로 공고해야 하며 통보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는 최소 14일의 소집공고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법 (UU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제 75조에서 제 9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결정족수는 각각의 주식회사가 설립 시 주식 회사법의 규정보다 더 많은 정족수를 규정한 경우 각각의 회사 규정에 준하여 의결 가능하니 비교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작성 : 김중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그 섬에서 온 편지

신 정 근 /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거주

바닷바람이 선선하다. 가끔 성난 바람이 불어와 탁자 위에 놓인 안경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자바 해(Java Sea)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찬내음이 코 끝을 스치며 맥주의 향과 함께 공기 중에 잘 버무려진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는 그런 곳이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태양의 뜨거움만큼 유명하고 더불어 이곳을 기착지 삼아 드나드는 수많은 배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으리라. 이 먼 타국(他國)에서 나는 나의 고향, 서울을 생각하고 또 그 가을의 맑고 시원한 단풍잎의 싱그러움과 함께 바쁜 도시인(都市人)들의 거친 숨소리와 ‘또깍또깍’ 소리 내어 걸어가는 구둣발 소리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크한 듯 속도 있는 서울 말씨와 도시 이곳 저곳의 카페에서 스며져 나오는 볏은 커피의 구수함과 때론 불쾌하지만 또 때론 그 역시도 거대한 서울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늦은 오후, 자동차들의 뿌연 매연 연기와 고막을 따갑게 만드는 경적 소리의 소스라침이 더욱 더 그리운 것이다.

그 수많은 그리움의 눈물이 이 섬을 감싸는 커다란 바다가 되어 다시금 인도양을 거쳐 한반도의 남해(南海), 혹은 현해탄 어디쯤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렇게 하루의 꿈을 꾸고 또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은 어찌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도시 풍경에 대한 ‘자의적 이별(恣意的 離別)’의 결과이겠거니 생각한다.

이곳은 세련되고 첨단인 서울 풍경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곳이다. 인구도, 면적도 서울의 십 분의 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길에서 마주친 사람과 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작은 이 도시의 매력은 지척의 바다와 도시를 감싸 안은 바람, 그리고 도로 곳곳에 서 있는 거대한 코코넛 나무와 용광로처럼 뜨거운 태양일 것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 사람들의 까무잡잡한 얼굴 속에 그려지는 정직하고, 순박한 미소일 것이다. 가식적이지 않고, 건조하지 않은 넓고, 깊은 미소 말이다.





특히나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맑은 눈의 아이들은 그 자체로서 자연의 일부 혹은 자연의 모든 것이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듯하다. 초라한 행색으로 동전 한 닢을 구걸하는 거리의 아이들과 신문과 잡화 등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은 괴로운 그들의 삶과 더불어 한 폭의 풍경처럼 오버랩 된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70~80년대의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 마카사르의 모습은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이다. 똑같은 청춘과 똑같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의 도시, 마카사르는 그렇게 어느새 나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런 곳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서울의 복잡다단함과 끝도 없는 경쟁으로부터 잠시나마 나에게 긴 호흡으로 마른 숨을 뱉어낼 시간을 부여하며 검붉은 심장으로부터의 상상력을 재장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압장치’ 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나의 도시, 서울을 사랑한다. 특히나 서울의 스산한 겨울 공기 말이다. 겨울바람을 느낄 수 없는 마카사르에서는 그것이 이곳의 지나친 한가로움과 더불어 유이한 단점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그렇다. 나는 사실 여름의 열기보다는 겨울의 한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두툽한 코트를 입고 사람들의 옷깃을 스치며 서

울 시내를 활보하기 좋아하는 나는 매일 밤 꿈 속에서나마 서울과 마주하고픈 상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마카사르에서 그곳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약 5,279킬로미터, 비행기로는 아직 직항은 없지만 직항로로 대략 7시간 남짓 떨어져 있으며, 1시간의 시차까지 두고 있는 터라 지척의 바다에 나가서 고국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맡아보려 해도 앞바다의 짠 내음과 물고기의 비린내 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고국의 변화무쌍하고 화려한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메시지는 타국의 나에게 꽤나 포근한 모국(母國)의 품을 느끼게 해 준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은 다행히도 시간의 축적 속에 매일 조금씩 희석되곤 한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해변에 나가 너른 바다 어디쯤에 있을 저편의 고국을 향해 눈길을 돌린다.

내가 느끼는 공간의 이질감이 때론 새로운 상상력을 보충하기도 하고 감각의 동질감이 팽창하는 그리움의 크기를 위로하기도 한다. 서로 상반된 두 장소에서 문화적 노마드(Nomad) 족(族)으로 살아가는 나는 그렇게 그림의 미학 속에 하루의 일상을 연필로 꺾꺾 눌러쓴 글자 하나하나에 담고서 끊임없이 읽고, 고치기를 반복한다. 그것이 이 도시 숲에서 내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놀이인 것이다.



2017년 제 1회 적도문학상 수상자 발표

상 별		부문	작품명	구분	수상자	지역	시상내역
대 상 한국문협 이사장상		수필	그 섬에서 온 편지	성인	신정근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상장과 상금 US\$1,000
최우수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주인니 한국대사상	수필 수필	두 얼굴의 인도네시아 나에게 한국이란	성인 인니인	이민희 JANUAR	Semedang 족자카르타	상장과 부상 “
	아세안대사상	수필	한국어교수의 꿈	인니인	MEUTIA	자카르타	상장과 부상
	재인니 한인회장상	시 수필	맹그로브 숲 나의 인도네시아에게	성인 학생	김수경 홍수빈	자카르타 “	상장과 부상 ”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재인니 상공회의소 회장상	시 수필	꼴라빠가딩 보슬비 눈이 맑은 사람들	성인 학생	송치선 김현지	자카르타 Depok	상장과 부상 “
	한국문협 인인지부장상	수필 시	빵사탕에 담긴 마음 야자수	성인 학생	서정란 김혜민	반 동 땅그랑	“ “
	한인포스트 연 론 상	시 수필	엄마의 정원 망고같은 사람	성인 학생	송민후 박은수	자카르타 자카르타	“ “
	글로벌기업상 삼성인니법인	수필 시	인니인들과 소통하기 마라톤	성인 학생	이정희 김미선	버카시 찌까랑	“ “
특별상	자카르타한국 국제학교장상	수필 수필	동근식탁과 중국인교육 한비야 di Indonesia	성인 학생	하연수 조성빈	땅그랑 자카르타	“ “
장려상	한국문협 인인지부장	시 수필 수필 수필 소설 시	그리움 나 무 Kita bersahabat 울도국을 꿈꾸며 바보처럼 널 사랑해 이해와 타협속의 나	성인 학생 학생 성인 인니인 성인	김재구 양승일 김범구 엄재석 Aldi알디 김두형	찌까랑 자카르타 자카르타 자카르타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 “ “ “ “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 안인포스트 공동주관

HIGHLIGHT JOGJA BATIK

1st EXHIBITION

하이라이트 족자 바틱 전시회



First Exhibition

자바펠리스 호텔

Java Palace Hotel

16일 17:00 강의 및 오프닝

16(Tue) - 25(Thu)
May 2017

Second Exhibition

한국문화원

Korea Cultural Center

27일 10:00 강의 및 오프닝

27(Sat) - 30(Tue)
May 2017

Jl. Gatot Subroto Kav.58 Korea Center. Tel. (+62 21) 2966-0825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회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후원: PT. Cipta Orion Metal

2017년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기준: 납부일 순)

번호	성명	금액(IDR)	비고
63	고영철	300,000	2017
64	김호권	300,000	2017
65	강승모	300,000	2017
66	홍광호	300,000	2017
67	이원만	300,000	2017
68	송치선	300,000	2017
69	서미숙	300,000	2017
70	배동선	300,000	2017
71	이태복	300,000	2017
72	이은주	300,000	2017
73	한상재	300,000	2017
74	박화선	300,000	2017
75	신훈용	300,000	2017
총 금액		Rp3,900,000	

KANA 가나
RESTOLOUNGE

케터링 (Catering Service)
퀵 도시락 (T/A)



가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케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인이상 맞춤형 이벤트 환영
돌잔치, 집들이, 골프모임, 피로연, 동문회 등

메뉴 : 불고기, 잡채, 모듬전, 샐러드류 한방 갈비찜,
김밥, 초밥, 수육, 떡볶기, 새우요리 및 씨푸드 등의 전통 한정식
디저트 : 식혜, 수정과, 콕탈(화채), 모듬떡, 시즌과일 등등.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나눔이 있는 찢레곤에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은 지난 3월 한국의 제주 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전경배), PT Kostec Posco(사장 정영규) 와 함께 찢레곤 포스코 인근의 마을에 있는 고아원을 3군데 방문하였다.

Al Itmam, Kebangsari, Al Mubarik 고아원 3곳에 각각 2천만루피아씩해서 6천만 루피아를 전달했고, 헤리티지 봉사자 10여명이 준비한 중고물품과 책가방, 학용품, CJ프레쥬르에서 제공한 빵을 고아들에게 전달하였다.

제주 중앙라이온스클럽과 PT Kostec Posco 정영규 사장은 5년전부터 해마다 고아원 후원을 해왔는데 올해에는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섹션이 참여함으로써 봉사자들과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게 되었다.



JIKS 강연

지난 4월 18일 직스 5~6학년 80명 대상으로 김영덕 헤리티지 코리아섹션 스쿨프로그램 팀장의 ‘족자’ 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재인도네시아안인회 2017년도 임원찬조금 납부 명단

※ 기준: 2017년 4월 28일까지

번호	구분	성명	회사명	금액	
				USD	IDR
40	수석부회장	김주철	PT. STAR CAMTEX		130,000,000
41	수석부회장	박재한	HOTEL JAVA PALACE	10,000	
42	자문위원	김문환	PT. KASINDO GLOBAL UTAMA		13,500,000
43	부회장	이종현	PT. LEO KORINSIA		65,000,000
44	부회장	홍춘식	PT. SENG DAM JAYA ABADI	5,000	
45	이사	고영철	PT. SHIN KWANG WORLD INDO		13,500,000
46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3,500,000
총 금액				\$15,000	Rp235,500,000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글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회계, 법률, IT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달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웍(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글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글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한인뉴스는 <소개합니다> 코너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인사동정 및 새로 연 사업체를 무료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인뉴스 편집국 (Telp. 021-521-2515/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실어 드리겠습니다.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병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종)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람임마누엘 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람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 0815-4609-7209
Katalin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 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한바패 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헤리티지 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 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자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앙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군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깡뚝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 A LEVEL



OPEN FOR REGISTRATION
For 2017/2018 Academic Year

Contact us: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ACCREDITED ACBIS

www.ichthusschool.com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글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창립 24주년 행사

아시아진주가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4주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상의 품질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감사 특별 할인행사 :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2월 28일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감사 특별 할인 및 한정 판매

남양진주(10-17mm) 50점

다이아(3부-1캐럿) 10점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HP. 0816-873-176,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256-6862,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병우	0811-956-227	회장
강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승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 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 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관.....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항공(시내).....021)5721381~3	
(공항).....021)5591 3229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PT. DOOSAN CIPTA BUSANA JAYA



세계 패션 의류 생산의 중심, 두산



선진 섬유 기술의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 온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는 글로벌 의류 시장의
우뚝 선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 입니다.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No.1 RETAILER IN ASIA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는 글로벌 유통기업, **롯데마트**
인도네시아에서도 롯데마트는 대한민국 유통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HYPERMARKET (14 STORES)

JAKARTA: • Gandaria City (021) 29053060 • Ratu Plaza (021) 7394555 • Kelapa Gading (021) 45855111 • Mal Kuningan City (021) 30480888 • Fatmawati (021) 7591 0837 • LOTTE Mall Taman Surya (021) 29501300 | TANGERANG: LOTTE Mall Bintaro (021) 29310777 | CIMONE: Cimone City Mall (021) 29170235 | BEKASI: Mal Bekasi Junction (021) 88348885/88344681 | BANDUNG: Mal FestivalCityLink (022) 6128 500 | MAKASSAR: Mal Panakkukang (0411) 423445 | MEDAN: Mal Centre Point (061) 80501303 | SOLO: Mal The Park (0271) 7891250 | SURABAYA: Marvel City (031) 99440510

WHOLESALE (27 STORES)

JAKARTA: • Pasar Rebo (021) 8404090 • Kelapa Gading (021) 4523811 • Meruya (021) 5857101 | BEKASI: Bekasi (021) 82428818 • Cibitung (021) 8980678 • Cikarang (021) 89101018 | TANGERANG: • Alam Sutera (021) 5399660-61 • Ciputat (021) 74700140 • Jatake (021) 29329950 | SERANG (0254) 8241945 | BOGOR (0251) 7564700 | BANDUNG (022) 7503570 | CIREBON (0231) 8333024 | TASIKMALAYA (0265) 7293333 | SEMARANG (024) 6733535 | SOLO (0271) 740319 | YOGYAKARTA (0274) 4462616 | SURABAYA: • Masprip (0821) 32537174 • Sidoarjo (031) 8532244 | BALI (0361) 723222 | MEDAN (061) 8470010 | PEKANBARU (0761) 572215 | PALEMBANG (0711) 379623 | BANJARMASIN (0511) 3265450 | BALIKPAPAN (0542) 8879523 | MAKASSAR (0411) 832813 | BATAM (0778) 4803800

SUPERMARKET (2 STORES)

JAKARTA: La Codefin Kemang (021) 7182889 | BANDUNG: Bandung Electronic Center (022) 20510044